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 주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7월 12일)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8월 16일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서 인사말을 마치고 돌아서고 있다.

조계종 역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 가결

설정 스님 불명예 퇴진 기로 서다

중앙종회 제211회 임시회서… 찬성 56표로 '불신임'

설정 스님 "사퇴 연기" 호소
의혹 해소 가능성 낮아지며
종단 대중 피로감 누적된 듯

원로회의 22일 인준관련 논의
인준 시 원장 자격 즉시 상실
60일 내 차기 선거 준비해야

글= 윤호섭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불신임안 인준절차가 남았지만 설정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 결의를 받은 총무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8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제211회 임시회를 개원, 첫 안건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다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6, 반대 14, 무효 1표로 가결 정족수인 50표(재적의원 3분의2)를 넘어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4명의 종회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즉각 사퇴 불가" 밝힌 설정 스님

설정 스님은 앞서 '중앙종회 임시회 전 사퇴' 뜻을 간접적으로 밝혀오다가 8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31일 사퇴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종단 내부의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견제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사퇴만이 종단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해 자신의 사퇴를 종용하는 견제세력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어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종단개혁의 초석만은 마련하고, 올해 12월 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총무원장 진퇴와 관련된 조계종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결국 설정 스님은 중앙종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임시회 당일 설정 스님은 "저는 종헌종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 불신임 사유가 종단 위상에 걸맞은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불신임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 당시 회의장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종회 부의장 초격 스님은 "(총무원장 불신임은)초유의 사태다. 이 때문에 가결 당시 침울한 기운이 돌았다. 다만 종단 정상화를 열망하는 종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종회 분위기를 전했다.

불신임안 가결은 설정 스님이 종단 내부 지지를 받지 못해 이뤄진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자의혹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MBC PD수첩 등 공중파를 통해 문제제기가 이뤄져 종단 위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 설정 스님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결백만을 주장해 종도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구본사주지 스님은 "총무원장스님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임에도 종단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의혹 해소를 위한 유전자검사는 요원한 일이 됐다"며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지지해준 종도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로회의 인준절차 남아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대중의 이목은 8월 22일 소집되는 원로회의에 쏠린다. 이날 원로회의는 중앙종회가 가결한 불신임안 인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원로회의 인준은 재적의원(23명) 과반수이상 동의해야 가능하다. 불신임안이 인준되면 설정 스님은 그 즉시 총무원장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 종정 교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성명, 중앙종회 결의 등 종단 중진 인사들의 입장이 설정 스님 사퇴에 방점을 찍고 있어 원로회의의 인준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10인의 원로의원들이 지난 7월 27일 총무원장 퇴진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자격을 상실하면 종단은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 궐위 60일 내 차기 총무원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때까지 권한대행은 총무부장이 맡는다. 이와 관련해 설정 스님은 16일 오전 신임 총무부장에 진우 스님, 기획실장에 학암 스님을 임명했다. 앞서 임명된 총무부장 성문 스님은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으며, 설정 스님은 한동안 공석이던 총무부장에 기획실장이던 진우 스님을 앉혔다.

한편 중앙종회는 임시회 개원 당일 23일 예고된 전국승려대회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5일간의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또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8월 15일 회의를 통해 조계사, 총무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려대회 당일 '종정 교시 준수 결의대회' 등과 같은 맞불법회 성격의 행사를 봉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강제징용 희생자, 국민 품에서 쉬소서"

유해봉환위, 광복절 맞아
유해 환국·광화문서 추모제

광복절을 맞아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의 유해 35위가 국내로 돌아왔다.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가 구성한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상임위원장 무원, 대전 광수사 주지)는 8월 15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14일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온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5위에 대한 국민추모제를 진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일본 국평사 주지 윤벽암 스님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들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해 봉안과 헌화, 7대종교 추모의식 등으로 이뤄졌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8월 15일 광화문 광장서 열린 국민추모제에서 대표자들이 유해 봉안 전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은 "일제강제징용 희생자의 유해 봉환은 당시 상처를 치유하고 남아 있는 후손들과 국민들에게 역사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며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가 모두 환국하는 날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유해봉환위원회는 8월 16일 서울시립 용미리 제2묘지공원에 유해 35위를 안치했다.

노덕현 기자

고양시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 동참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7개 센터서 진행

본지와 불교환경연대가 전개하는 텀블러 사용 캠페인에 고양시가 동참키로 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고양시 산하 기구인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광기)는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불교환경연대와 함께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해당 캠페인은 텀블러 사용을 독려해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양시 측은 거점센터 6곳과 주엽커뮤니티센터를 통해 텀블러 나눔을 진행한다. 홍보채널로는 고양시 SNS와 웹자보,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한다. 또한 고양시가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서도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 전용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신문도 캠페인 관련 소식을 전하며 협력키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지정된 장소서 일회용품 안 쓰기 서약을 한 뒤,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면 텀블러를 기부하거나 가져갈 수 있다. 기부장소는 덕양구 △덕양구청 △행신2동행정복지센터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일산구 △일산동구청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문화의 집 그리고 주엽커뮤니티센터 등 7개소가 선정됐다. 센터별 운영 시간과 세부 장소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y1365.or.kr) 내 공지사항서 확인할 수 있다. (031)906-1365

김지원 수습기자

종단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종단적, 비승가적 승려대회의 조계사 개최를 불허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산입니다.

특히 조계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서울 시민들에게는 종교공간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는 힐링과 휴식의 공간입니다. 나아가 십만이 넘는 조계사 신도들에게는 붓다로 살기를 발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기도공간이자 소중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칭 승려대회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준비한다는 분들이 대회장소로 조계사를 지칭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조계사와 최소한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지속적으로 종단의 혼란을 조장했던 일부의 세력들에 의해 진행되는 금번 반종단적, 비승가적 자칭 승려대회라는 집회에 대하여 조계사 사부대중은 단호히 반대하며, 특히 종단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를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계승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예하께서는 종헌종법 준수를 강조하시며 "이제 사부대중은 시시비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상호 자성과 용서로써 수행본분으로 돌아가 대화합의 장에서 다함께 중지를 모아 불교중흥의 대장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리셨습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께서도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승려대회는 종헌질서를 무너뜨리고 종단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부대중은 신성한 기도도량이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양산하는 반종단적, 비승가적 자칭 승려대회라는 집회 및 시위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불허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종정예하의 교시를 봉대하고 종단운영의 근간인 종헌종법 질서가 반드시 준수되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추호의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불기 2562년 8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 선출 무산

중앙종회, 前호법부장 세영 스님 추천안 발의자 철회

단독 후보로 추천됐지만
호법부장 직무 미흡 지적
10월 중앙종회의원선거 등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체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달 17일 종훈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원로회의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인준 시 차기총무원장선거까지 선관위원장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8월 16일 개원한 제211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총무원장 불신임안 처리 이후 상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을 다뤘다. 하지만 격론 끝에 발의자가 안건을 철회함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중앙선관위원장 후보로는 용주사 출신 前호법부장 세영 스님이 단독 추천됐다.

복수의 종회의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서는 법륜승가회 소속 의원들이 세영 스님 추천에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몇몇 종회의원들은 "세영 스님의 호법부장 재직시절 용주사와 마곡사 등에서 발생한 금권선거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前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에 대한 친자의혹이 제기될 당시 호법부가 문제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이는 현재의 종단 사태에 불씨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에도 세영 스님을 추천한 종회의원들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벌어질 총무원장선거 등에서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추천을 철회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위원회 간사 태성 스님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앙종회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된 신흥사 득우 스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교구본사주지 연령제한을 만 70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차기회의로 이월했다.

한편 종책질의에서는 최근 직원 횡령사건이 벌어진 사회복지재단과 유전자 검사를 위해 구강 점막세포를 채취하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 사진을 배포한 기획실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종회의원 화림 스님은 '복지재단 종사자 및 시설 종사자 교육현황과 도덕성 결여 극복방안'을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재단 측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가치와 윤리, 인권보호, 시설회계 투명성 강화 등 매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윤리와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총무원장의 유전자 시료 채취 사진 배포가 적절한지 묻는 광전 스님의 질의에 기획실 측은 "총무원장스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유전자 채취 과정을 가감 없이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무분별한 의혹제기 및 유전자 검사 시행 유무에 대한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 횡령혐의 불기소 결론

8월 6일 검찰서 사건 종결

지난 5월 MBC PD수첩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보도한 데 이어 일반인들이 현응 스님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조계종은 "일반인 2인이 현응 스님 해인사 주지재임 기간(2004.10~2008.8)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5월 23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됐다"고 8월 16일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조사를 이첩,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수사대는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된 식당, 주점, 호텔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7월 30일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도 8월 6일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현응 스님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1건도 확인할 수 없음 △일부 주점사용과 노래방 이용도 외빈접대나 직원회식 경우이며 관련 소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 △외빈접대나 직원회식은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에 드는 것으로, 사찰회계매뉴얼에 규정돼 있어 문제 없음 등을 불기소 이유로 밝혔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이 8월 15일 저녁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115회 무술년 재가불자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사진제공=금강신문

천태불자들 폭염 속 안거 '돌입'

천태종, 단양 구인사서 무술년 하안거 결제식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계속된 폭염 속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향한 여름 한 달 안거정진에 들어갔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8월 15일 저녁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5회 무술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서 종정 도용 스님은 안거대중에게 결제법어를 통해 "계법을 지키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고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마음자리에 어긋나지 않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해야 한다. 이를 잘 알고 한 달간 용맹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결제사에서 "정진 공덕은 어떤 도둑이 와도 훔쳐갈 수 없고, 어떤 재난이 닥쳐도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난에서 건져 주고 무간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자비지혜의 대광명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무술년 구인사 하안거에는 남성 113명, 여성 546명 등 총 659명이 동참했다. 또한 전국의 천태종 말사에서도 불자들이 천태종 수행종풍인 주경야선(晝耕夜禪)을 통해 각자 정진에 나선다. 안거 해제식은 9월 14일 오후 9시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되며, 안거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종정 도용 스님의 대중법문이 펼쳐진다.

한편 결제식은 교무부장 경혜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국운융창기원 △결제법어 △결제사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우란분재와 어미 왜가리

최악의 폭염이라고 불리는 2018년 한반도의 여름 어느날. 어미 왜가리가 날개로 그늘막을 만들어 갓 나온 새끼들을 폭염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등지고 새끼들을 보살피던 어미 왜가리는 해가 중천에 뜨자 날개를 크게 펼쳐 그늘막을 만들고 움직이는 해를 따라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이면서도 어미 왜가리는 하루종일 단 한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며칠째 새끼들을 지켰고, 저녁이 돼서야 먹이를 구하러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구하는데서 시작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선행을 찾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존자 어머니의 선행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거미를 살린 인연으로 목련존자는 거미줄을 지옥에 내려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거미줄에 매달려 나오다가 수많은 지옥중생들이 줄줄이 다리를 잡고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을 발로 차는 순간 거미줄이 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일러주셨습니


우란분재와 어미 왜가리 그림 · 조향숙

'우란분재'는 조상천도와
현세부모 복락기원 의식
고통나눔의 無緣大悲 수행

철새 관찰용 CCTV에 생생히 찍힌 그 감동의 모성애는 TV뉴스로 방영되고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오는 8월 25일(음력 7월 15일)은 무술년 하안거 해제일 백중이며 우란분재(盂蘭盆齋)일입니다.

우란분재는 안거를 마치고 자자(自恣)를 행하는 스님들에게 갖가지 공양을 올려 그 공덕으로 선망부모의 영가천도와 현재 부모의 복락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너무나 지중합니다. 마치 어미 왜가리가 폭염 속에서 새끼를 지켜내듯 세상의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것은 조건없는 사랑입니다. 우란분재는 이같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효행 입니다.

우란분재의 우란분은 범어의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말로 지옥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란분재는 목련존자가 아비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하는데서 시작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선행을 찾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존자 어머니의 선행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거미를 살린 인연으로 목련존자는 거미줄을 지옥에 내려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거미줄에 매달려 나오다가 수많은 지옥중생들이 줄줄이 다리를 잡고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을 발로 차는 순간 거미줄이 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일러주셨습니다. "안거 해제일에 청정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선망부모를 구제할 수 있다."

*지옥을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교가 있습니다. 우란분재 백중기도는 한맺힌 모든 고혼 중음신을 이고득락케 하는 천도의식입니다. 중음신은 집착이 강합니다. 한이 두꺼워 한번에 천도가 안되면 점점 녹여야 합니다.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송환'을 합의했고, 68년 전 북한에서 목숨을 잃은 일부 미군들의 귀국 의전에서 감사와 빛진 마음으로 영가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 모습은 '미국식 우란분재'였습니다. 영가들의 명복을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우란분재일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겠다'는 지장보살의 대비(大悲) 원력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은 지옥에만 있지 않습니다. 힘든 이웃에게 널리 보시하고 공양하여 고통을 더는 무연대비(無緣大悲) 공덕나눔과 효행으로 자기 중생심을 제도합시다. 그것이 양심회복의 수행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아시아 불자 장애인 시집 발간 도와주세요

보리수아래, 한국 · 베트남 장애인 시집 스토리 펀딩

지난해 미얀마편 이어 2번째
양국 중증장애작가 10명 참여
장애 주제로 詩 선보일 예정
9월 25일까지 1천만 원 목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시아 불자 장애인 시인들의 시집을 발간하기 위한 스토리 펀딩이 시작돼 화제다.

불자 장애인 신행모임인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8월 9일부터 '아시아 장애인들의 공동시집 제작'을 주제로 스토리 펀딩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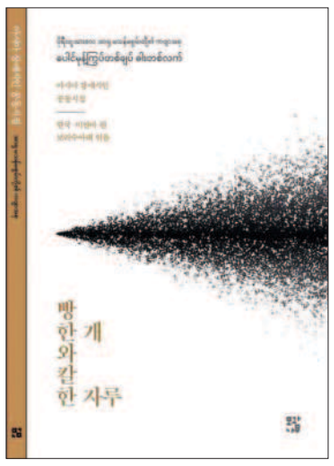
한국과 베트남 중증장애시인이 참여 · 발간하는 〈시로 엮은 내 사랑을 받아주오〉는 장애라는 특별한 개성이 담긴 주제와 이를 통한 시심(詩心)을 엮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집이다. 또한 주최 측은 참여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열어 대중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시집에는 중증장애작가 10명의 참여해 시 40편을 선뵌다. 시집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동시 수록된다.

한국작가로는 권오웅(지체장애) · 김준엽(뇌병변장애) · 정상석(뇌병변장애) · 이순애(지체장애) · 김영관(교통사고중도뇌병변장애) · 성인재(뇌병변장애) 시인이, 베트남에서는 짠 응옥란(후천적 장애) · 응우옌 비엣 아잉(시각장애) · 짠 홍 장(지체장애) · 도 쩡 커이(관절장애) 시인이 참여한다.

안철환 동작구문인협회 사무국장과 베트남문인회 통번역가인 레딩환 씨가 번역 작업을 맡았다.

아시아 불자 장애인 시인들의 시작(詩作)을 통한 교류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보리수아래가 주관하는 지난해 한국


보리수아래에서 지난해 발간한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 미얀마 편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의 표지. 올해에는 베트남 편을 선보인다.

시인 5명과 미얀마 장애작가 8명이 참여해 공동시집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을 발간했다.

박경식 부산외국어대 미얀마어과 교수와 미얀마대사관 레이레이 몬의 번역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로 동시 수록했고, 기념 북콘서트도 열었다. 11월에는 미얀마 양곤의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를 직접 방문해 책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당시 시집에 참여했던 미얀마 시인 미얏 쭈 에잉 씨는 책을 전달받고 "내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돼 책으로 나오는 것이 꿈만 같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보리수아래가 주관하는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 베트남 편의 스토리 펀딩은 오는 9월 25일까지 이어진다. 목표 모금 금액은 1000만원이다.

후원 펀딩은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며, 금액을 정하지 않은 통큰 펀딩도 가능하다.

후원금은 아시아 장애인들의 공동시집 발간과 번역, 베트남시인 초청과 북콘서트 개최, 참여 작가들의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제작한 공동시집은 작가, 한국문인협회, 장애인단체, 정부기관, 도서관, 아시아 각국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펀딩 금액마다 일종의 보상인 '리워드'도 제공된다. 1만원의 경우 보리수아래 간행물과 장애시인과 음악인들의 기증 소품이, 2만원은 보리수아래 서정음반 '시, 그대 노래로 피어나다'가 후원자에게 배송된다.

3만원 후원자에게는 이번에 발간되는 공동시집과 서정음반이, 5만원 후원자에게는 시집과 음반, 북콘서트 초대권이 제공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회장은 "불자 장애인 문인들이나 음악가들은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다. 외국 작가와의 교류는 더욱 어렵다"면서 "장애인공동시집 발간은 한국과 외국 장애인 문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업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문인과 음악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불자와 국민들의 후원금은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펀딩 후원을 요청했다.

펀딩 주소: https://storyfunding.kakao.com/project/20038?

대학생 불자들 평화 통일 기원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이 광복 73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영부디스트 캠프에서 평화통일 발원문을 발표했다.

대불련은 발원문을 통해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다시 대화를 하고 손을 맞잡았다"면서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흘린 슬픔의 눈물들이 환희의 눈물이 되어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어 평화를 찾고, 정법과 정진의 힘으로 민족의 연화를 피워 불국정토를 건설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처님이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학생 불자들은 참다운 보시행 실천을 통해 서로 마음을 채워가면서 삼천리 금수강산에 자비의 광명을 두루 비추는 꺼지지 않는 밝은 등불이 될 것을 서원했다.

노덕현 기자


故김주중 노동자 49재를 찾은 추모객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來生엔 정리해고 없는 평등세상 가기를"

조계종 사노위, 8월 14일 쌍용차 故김주중 해고노동자 49재

"비록 이 생에선 복직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선 부당해고 없는 안락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故김주중 해고노동자 영전에 잔을 올립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쌍용자동차 복직을 기다리다 6월 27일 생을 마감한 故김주중 해고노동자 49재 막재를 서울 중구 대한문 분향소 앞서 8월 14일 봉행했다. 이날 고인의 유가족을 비롯, 사노위원장 혜찬 스님과 사노위 소속 지몽 · 법상 · 시경 · 우담 · 대각 · 보영 · 현성 · 서원 스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조합원, 시민 등 70여 명이 자리에 함께 했다.

막재는 △〈천수경〉 송주 △추도사 △대령 △정근(나무아미타불) △재를 위한 축원 △회심곡 순으로 진행됐다. 집전을 맡은 스님들이 염불을 독송하는 동안 추모객들은 영단에 올라가 절을 하거나, 눈을 감고 합장한 채 영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은 영단 아래서 사노위 측 도움을 받아 잔을 올렸다.

김지원 수습기자

"200세까지 살아서 '위안부' 문제 해결"

이용수 할머니, 8월 11일 日 성노예 피해자 기림제서

지난해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맞은 첫 기림일에 앞서, 불교계가 주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제가 열렸다.

6명의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제3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행사'를 8월 11일 개최했다. 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야외광장서 열린 행사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시민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옥선(88), 이용수(91), 박옥선(94) 피해자 할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소속 각 지자체 의원, 자원봉사팀, 후원 협력업체, 중 · 고등학생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회는 가수 겸 연기자 김동완 씨가 맡았다. 행사는 △고인이 된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 △문화공연 △인사말 △기림사 △故김순덕 할머니 생애사 출판기념회 △기념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주인공 이용수 할머니가 기림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진행된 합의 등을 꼬집고, 앞으로도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림사서 "2015년 12월 28일, 지난 정부는 우리 의사와 무관한 '위안부' 합의를 일본과 했으며, 이후 비밀협상 등도 있었다"며 "관련 의혹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처벌, 일본 정부에게 받은 10억엔 반환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나이가 올해로 91세다.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라며 "200세까지 살아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다짐해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 성공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14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는 2017년 10월 말, 2744건에 달하는 피해자 증언과 자료들을 종합한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 등재 신청한 바 있다. 일본의 전방위 로비로 인해 끝내 불발된 뒤로 등재추진은 중단됐다.

나눔의 집 원장 원행 스님은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렸다. 이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기쁘다"며 "일본의 진실규명과 공식사과, 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베트남 여행업계 사로잡은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템플스테이 테마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8월 9~12일 동남아권 방한 관광객들의 템플스테이 참여 확대를 위해 베트남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팸투어는 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가 함께 주최했으며, 특수 목적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발한 '심신치유 테마 코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심신치유 테마 코스'는 자연, 음식, 치유, 명상 등을 주제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팸투어 참가자들은 첫날 강화 전등사에서 범종, 대웅전, 업경대 등 문화재를 탐방하고, 염주 만들기와 스님과의 차담을 체험했다. 이후 남양주 봉선사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서울 조계사 · 진관사에서 △연잎밥 만들기 △차 명상 △예불 △타종체험 △108배 등을 체험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 중 연꽃과 관련된 '사찰음식 만들기'와 '컵등 만들기'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제2회 법계문학상
대상 수상작
이갑숙 장편소설
무명속을 헤매던 삶의 길목에서
다가온 순간의 빛,
그 빛이 밝혀주는 진정한 만남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
꺼지기 쉬운 빛


값 13,500원
※ 본 도서는 전국의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법계문학상
제3회 법계문학상 공모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 명성스님'의 서원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입니다. '법계문학상'은 역량 있는 불교문학 신인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장편소설과 장편동화를 공모합니다.

공모분야
공모분야 장편소설, 장편동화
공모주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한 자유로운 소재
공모분량 장편소설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분량
장편동화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 분량

일정 및 방법
응모기간 2018. 10. 31까지
응모자격 신인 또는 등단 7년이내 작가
※ 자세한 응모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내역
대상 1작품 상금 2,000만원 및 상패
※ 시상식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문의
http://blog.naver.com/batistaff
Tel : 070-8880-8202 / E-mail : batistaff@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21,1101호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 응모한 작품은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종교·국적 넘어 인류 헌신, 감사드려”

제22회 만해대상 시상식… 평화대상 대만 자제공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 제22회 시상식이 열렸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제)는 8월 12일 오후 2시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2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만해축전조직위원회 총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명예대회장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최상기 인제군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봉사, 자선,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대만 불교 민간 구호단체 ‘자제공덕회’가 받았다.

만해실천대상은 6만 명이 넘는 버려진 아이들의 주치의로 활동한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이, 만해문예대상은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와 브루스 풀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만해대상’은 ‘대한민국의 노벨상’이라 불릴 만큼 저명한 상”이라며 “만해대상 수상자들은 국적과 종교, 성별과 나이에 구분없이 인류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구호단체 ‘자제공덕회’의 설립자 증엄 스님을 대신해 수상한 덕랑 스님은 “이 상은 국내와 해외에서 묵묵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서
실천대상 조병국 명예원장
문예대상 최승범, 풀턴 교수

는 모든 자제인들의 영광”이라며 “부처님의 큰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광명이 인간세상을 고루 비추길 축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조병국 명예원장은 “6·25 피난길에 널브러져 있던 어린 아이들을 보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 영광을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말리 홀트 여사와 홀트재단의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최승범 명예교수는 “생각지 못한 상을 받아 큰 영광이며 남은 여생도 이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브루스 풀턴 교수는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번역에 힘써온 제가 이번 상을 받게 돼 기쁘다. 오늘 수상의 영광은 한국문학의 훌륭한 모든 작가분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8월 12일 강원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는 제22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자제공덕회 덕랑 스님, 조병국 명예 원장, 최승범 명예교수, 브루스 풀턴 교수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만해대상 시상식과 함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 혼을 기리는 ‘2018 만해축전’도 ‘화합·전진‘을 주제로 지난 8월 11일~14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과 인제 하늘내린센터, 인제실내체육관 등 인제군 일원에서 진행됐다.

만해축전 첫날인 11일에는 만해마을 만해학교 세미나실에서 ‘이념의 벽을 넘어, 만해사상과 신간회’를 주제로 만해연구소 학술세미나가 개최됐으며, 만해마을 님의침묵 광장에서는 제16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이 열렸다. 유심작품상에는 시부문 고형렬 시인, 시조부문 박방희 시인, 학술부문 송준영 시인, 특별무문 천양희 시인이 각각 선정됐다.

12일에는 평화시 낭송회 등의 행사가 진행됐으며, 13일에는 님의침묵 전국 고교 백일장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렸다. 국내 최고 규모인 고교 백일장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전국 4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백일장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최진아(유봉여고 3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문체부장관상은 시 부문 권용은(영등포여고 3학년), 산문 부문 신승희(여의도여고 3학년), 시조 부문 김민경(반송고 3학년)이 각각 받았다.

군종교구, 평화의 불 호국충의사에 밝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8월 12일 안양 수도군단 호국충의사에 평화의 불을 밝혔다.

군종교구는 군부대 방문 때마다 평화의 초를 전달해 군장병들의 신행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평화의 초에 발원문을 쓰는 행사도 마련됐다.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무더위에도 국토방위에 임하는 장병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평화의 불을 밝히고 일요일 법회를 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수도군단 부단장 오원진 소장은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는 것은 군인들일 것”이라며 “봉안한 평화의 불이 모든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부처님께 봉안하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한 걸음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한 연애 위한 소통법 배워요”

조계종복지재단, 8월 5일 익산서 육군 장병 대상 바른 관계형성 교육 진행

조계종복지재단이 육군 장병들의 원만한 연애와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은 올바른 소통과 관계형성 교육 ‘혼자는 편하고 둘은 즐겁다’를 8월 5일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 일요법회서 진행했다. 이날 평균 21세의 육군 장병들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운영 중인 복지재단은 “올바른 연애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상대를 대한 관심과 소통서 시작된다”


평균 21세의 육군 장병들이 ‘혼자는 편하고 둘은 즐겁다’ 강의를 듣는 모습.

며 “건강한 만남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혼자는 편하고 둘은 즐겁다’ 교육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이재목 연애컨설턴트(참한기획)는 △적극적이지만 과하지 않은 대화법 △상대방을 탓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소통법 △단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태도 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전교육을 강의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강의가 끝난 뒤 “연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복지재단은 9월에도 이와 관련한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솔직하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시대인 만큼, 직설적·이기적 대화방법이 아닌 배려와 존중,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군대생활서도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는 마음으로 보다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⑬

진말숙 불교호스피스협회 봉사자

“봉사 받는 기분으로 호스피스해요”


호스피스 세미나에 참석한 진말숙 봉사자(사진 왼쪽 첫번째)와 도반들.

사람은 살다보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기 전 잠시나마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부분 인생의 정리작업이 쉽지가 않다.

불교호스피스협회 진말숙 봉사자는 말기 암환자들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다.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그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12년 전 울산 정토마을에서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이후로 그녀는 울산대 9병동 봉사팀에서 매일 봉사를 하고 있다.

“항상 ‘봉사 해보고 싶다’는 문장이 마음 깊숙이 있었어요. 마침 정토마을 불교호스피스 교육이 있는 것을 알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봉사 때는 울산대까지 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봉사하러 가야 하나 했지요. 그런데 봉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봉사를 해보지 않은 이들은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스로의 삶에 활력소가 되는 것이 봉사이고, 오히려 봉사를 받는 기분이라고 말이다.

“처음 봉사라는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시작했는데, 한 중년 남자 환자를 만났습니다. 시골 동네의 이장도 하시고 왕성한 시기에 찾아온 암이 야속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가 병원생활에 집안일이 밀려 저에게 환자를 맡기고 가족분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이 마음을 열지 않아 힘들어 했지만 점차 마음을 여셨어요.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죠.”

그녀는 한 달이 지날 때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누구세요?”

“아 예, 누구 누구의 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못알아봐서요,”

“아닙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일다 치르고 생각이 나서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오히려 미안한 감정이 솟구쳤다는 그녀는 이때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한다고 했다.

그녀는 호스피스 활동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 가족 삶의 질도 함께 높이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 나이가 이제 70세입니다. 조금씩 저도 아픈 곳이 생기고 있지요.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제가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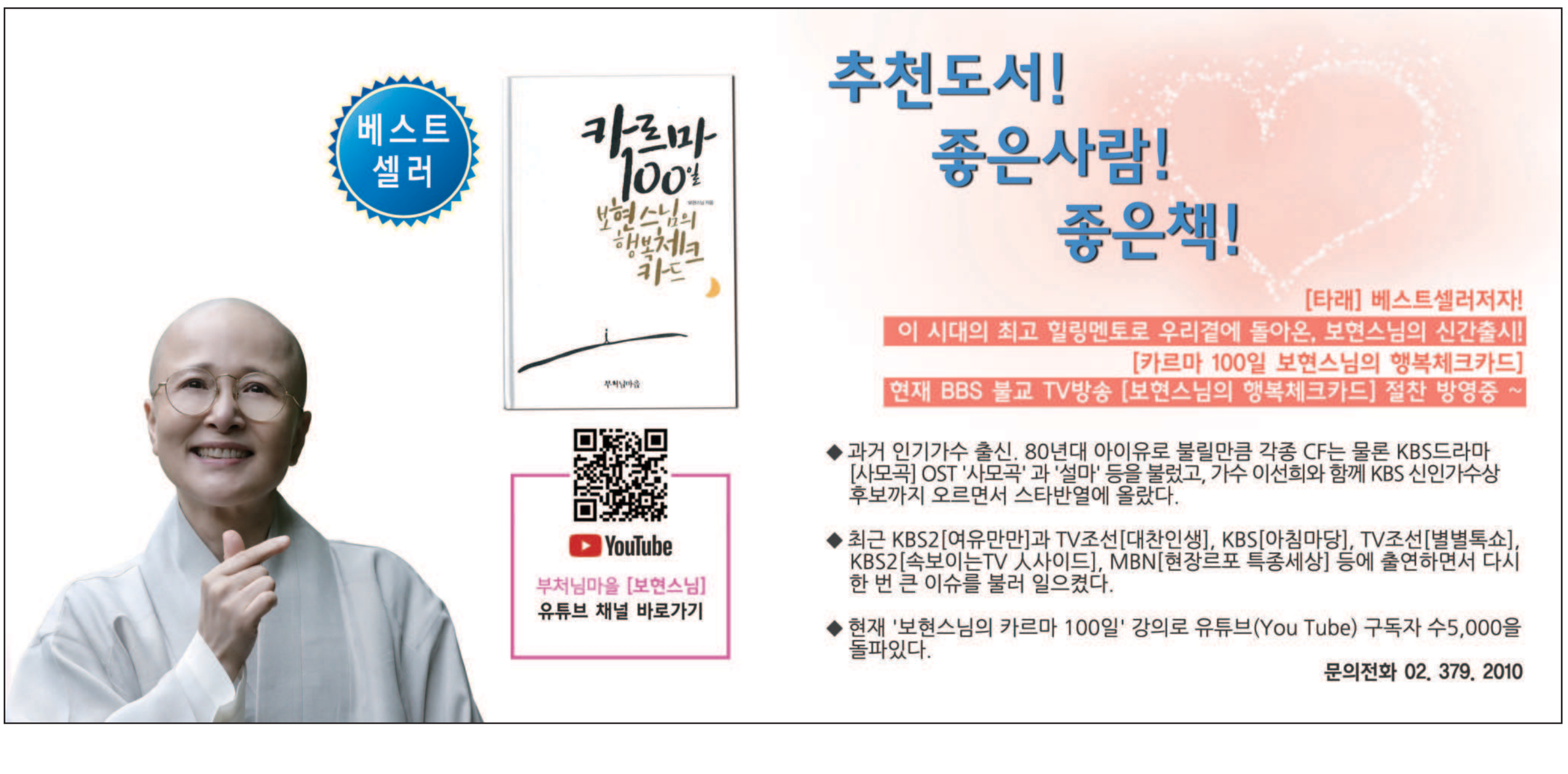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조계종 직할교구는 8월 12일 동국대 대운동장서 '제8회 천진불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 경기지역 30여개 사찰서 500여 명 이상이 참가한 와글와글 운동회에는 물놀이장, 물축구장이 마련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와글와글~' 신나게 물놀이… 佛心은 '송글송글'

조계종 직할교구, 제8회 천진불어울림 한마당 현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8월 12일, 동국대 대운동장에는 불자 어린이들이 대거 모였다. 미래불교 주역인 어린이 불자들의 신나는 운동회인 '제8회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이 열린 것이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개최한 이날 어울림 한마당에는 서울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진관사, 전등사, 수국사, 장경사, 관음선원 등 서울 · 경기지역 30여개 사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진불어울림한마당은 2016년부터 와글와글 운동회로 행사명을 함께 쓰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행사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여름방학에 맞춰 앞당겨 열린 만큼 물놀이장을 비롯해 물축구장 등이 마련됐다. 물총 쏘기 게임부터 풀장에서 열리는 축구게임과 공 던지기 게임까지, 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학업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동심과 불심을 함께 키워갔다.

물놀이를 주제로 한 만큼 입재식부터 남달랐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물대포 소리와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져 시원함을 더했다.

직할교구 사무국장 진광 스님은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놀이 중심으로 준비했다"면서 "행사 이름인 와글와글 운동회처럼 안전하면서 신나고 떠들썩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짧은 입재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물놀이장으로 달려갔다. 사찰별로 팀을 짠 아이들은 경쟁이 아닌 서로 어울려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인형탈을 쓴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물총으로 쏴서 맞추는 팀 대항전이었다. 시작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중앙으로 뛰어가면 아이들은 정신없이 물을 쏘았다. 옆에서 관전하던 지도법사 스님을 향해서도 물을 쏘고, 스님도 함께 대응하면서 물총싸움은 커졌다.

다른 한쪽에서는 초대형 미끄럼틀과 바나나보트를 탄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나된 어린이불자 축제
1000여 어린이 한자리에
레크리에이션, 물놀이 만끽

시간가는 줄 모른 채 즐기다보니 어느덧 점심 공양시간이 됐다. 이날 점심공양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도시락으로 마련됐다.

불자들이 모인만큼 남은 음식이 없게 깨끗하게 먹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동행이 참가 어린이들에게 보시의 방법도 알려줬다.

오후에는 팀 대항 카드섹션 게임과 함께 스님과 함께 하는 불교 퀴즈 시간 등 아이들이 재밌고 쉽게 불교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청팀과 홍팀으로 나뉜 아이들은 각자의 색에 맞는 카드를 뒤집어 승패를 겨루는 게임을 진행했다.

또 각 사찰에서 마련한 페이스페인팅과 블록 만들기를 비롯해 슬러시 보시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체험부스도 함께 준비돼 재미를 더했다.

이상훈 어린이는 "조계사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체육대회하고 물놀이하려고 신청했다. 퀴즈도 하고, 악당들이랑 물총 싸움하니까 재밌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참석한 봉국사 신도 유지현 씨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아이들과 해수욕장에 가지 못했는데, 도심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며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도 좋다"며 "최근에는 사찰에서도 물놀이 장이 늘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사찰로 가서 놀 수 있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아이들 지도법사로 행사에 참여한 도선사 무이 스님은 "가을에 열리는 것보다 방학 기간에 즐겁게 놀 수 있는 자리로 마련돼 더욱 좋았다"며 "앞으로도 여름철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다른 대회에도 참여했지만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 어린이청소년위원장상,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상, 어린이청소년전법단장상 등 다양한 상과 상품이 수여됐다.

한편,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매년 동참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직할교구에 따르면 2011년 첫 시작 당시 200여 명이 동참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일선 사찰들의 참여로 현재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했다. 2017년부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까지 1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대동한마당으로 꾸려지고 있다.

직할교구 사무국장 진광 스님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형탈을 쓴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아이들이 쏘는 물총세례를 맞고 있다.


어린이들은 물놀이장서 뛰놀며 학업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신나게 동심과 불심을 키웠다.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승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2〉 구좌읍 하도리 금붕사

이념 갈등 흉탄, 금붕사 붉게 물들였다



금붕사 창건주 성봉 스님은 1949년 음력 10월 21일 토벌대에 의해 금붕사 옛 입구에서 총살을 당해 입적했다. 외손자인 수암 스님(現 금붕사 주지)이 그 현장을 증언하고 있다.



성봉 스님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비석.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제주 구좌읍 하도리 금붕사 창건주 이성봉 스님은 1948년 4·3이 발발한 후 고향인 하도리 창흥동으로 피신하게 된다. 낮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저녁에는 속가인 창흥동으로 내려간 것이다.

겨울로 접어들 무렵, 1948년 음력 10월 21일 스님은 법당에서 사시예불을 드리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좇아 뛰쳐나갔던 스님의 눈앞에 목동이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 뒤로 총을 든 군인들이 헐레벌떡 뒤쫓아 왔다. 숨을 들이킬 사이도 없이 군인들은 스님에게 "이 앞을 지나간 목동을 못 봤냐"고 다짜고짜 물었다.

이에 스님은 "모른다"고 말하자 그들은 사상이 의심된다고 곧바로 스님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그리고는 6방의 총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래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자 군인들은 망설임 없이 바로 방아쇠를 스님의 심장 쪽으로 잡아당겼다. "타당!" 소리와 함께 피가 사방으로 튀면서 금붕사 도량을 붉게 물들였다.

군인들은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양철집인 대웅전과 스님이 기거했던 초가 요사채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초가집은 불을 지르자 금세 타올랐고, 다행히도 대웅전은 3분의 일만 타다 남았다. 그러나 스님이 흙으로 빚어 직접 만든 나한상 등은 불에 그슬려 손만 닿아도 부스러졌다.

당시 주지였던 성봉 스님, 목동 숨겨줬다가 총살
군인들 대웅전·요사채 불 질러… 나한상 등 파괴
외손자 수암 스님 "금붕사, 평화교육현장 만들 것"

군인들이 무서워 제때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던 시절이다. 겨우 군인들이 돌아가자 식구들은 스님의 총탄 구멍에 좌복의 솜을 떼어다 그 안을 막았다. 총탄에 온 몸이 벌집이 되어 버린 스님의 시신을 수레에 실었다. 이성봉 스님의 고향인 행원의 가족 묘지에 봉안한다. 가족들은 이 같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스님이 아미타부처님 품안에서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했다.

"어린 시절인데도 어머니와 이모님이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40년 생으로 이성봉 스님의 외손자인 수암 스님(現 금붕사 주지)이 할머니로부터 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처럼 토해냈다. 당시 스님은 부모님을 따라 전남 여수에서 지낼 무렵이었기 때문에 4·3의 광풍에 온전할 수 있었다.

이성봉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금붕사는 수암 스님의 어머니와 이모, 스님까지 4대째 이어오고 있다. 이성봉 스님은 16나한을 흙으로 직접 만들어서 법당에 봉안할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다. 그리고 스님의 손때가 묻어 전해지는 '오백나한 탱화'는 다행히도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 탱화는 화엄사에서 수행했던 이성봉 스님이 1925년 제주에 내려오면서 함께 가지고 온 것이란다. 그러나 아쉽게도 탱화의 제작연대와 작가는 모두 지워져 있다.

수암 스님은 금붕사나유타합창단을 통해 금붕사가 4·3당시 폐허로 변해버린 당시의 애절함과 이성봉 스님의 가슴 맺힌 한을 풀어내는 공연 등으로 연출하며 금붕사의 4·3피해 사실을 문화예술적으로 승화해내기도 했다.

수암 스님은 "금붕사가 4·3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들을 위한 평화교육현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며 "스님을 기억하는 추모비를 세우는 등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4·3

금붕사

이승만 제주 계엄령 발표 후 무차별 토벌에 스님 희생돼



성봉 스님이 1925년 화엄사에서 가져온 오백나한 탱화. 현재 대웅전에 봉안돼 있다.

금붕사는 구좌읍 하도리에 있다. 1926년 이성봉 스님이 창건하였고 1928년 화엄사포교소로 신고했다. 1936년에는 미신을 타파하고 불교의 근본정신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법화산림 대작불사를 마련하여 최청산, 김신산, 이학암, 문학연 스님과 함께 제주도 순회강연을 펼쳤다.

1948년 금붕사는 제주4·3사건으로 이성봉 스님이 군인에게 총살당하였고 요사채는 전소되었고 법당 일부가 소각되었다. 1950년부터 복구되기 시작하여 1978년에 대웅전을 중건했다.

1948년 10월 17일 송요찬 9연대장은 제주 해안에서 5㎞ 이상 지역에 통행금지를 명령하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어길 때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붕사도 해안가 마을 인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창흥동 마을에 방을 빌려 소개하고 있으면서 낮에는 절에 와서 예불을 보고 밤에는 창흥동 마을 집으로 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1948년 11월에 들어 토벌대는 구좌면 행원리 주민 10여 명을 총살하고 20여 채 가옥을 방화하였고, 남원면 의귀리, 수망리, 한남리 주민을 총살하고 가옥 대부분을 방화하였다. 애월면 하가리에서도 25명의 주민을 총살하고 방화, 소길리에서는 주민 50~60명을 집단 총살하는 등으로 초토화 작전을 벌였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피해 상황을 주한 미군사 고문단장은 "CIA는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9연대장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활동은 제주도민의 무차별 학살이었다.

그리고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금붕사의 이성봉 스님은 바로 이 시기 계엄령 등에 힘입어 기세등등해진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계엄령 선포 후 일주일 사이인 "11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폭도 122명 생포, 576명 사살했다"고 9연대장이 미군 임시 군사고문단에 보고한 것으로도 계엄령으로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하였음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나무 한그루 심으면, 더위가 사라진다

③ 숲의 중요성

사람 잡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입추에 40명이 넘었고 8월 15일 온열질환자 수는 4,02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온열질환자의 대부분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 등으로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폭염사회〉의 저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이러한 기후변화를 '사회 불평등' 문제로 진단한다. 오늘날의 기상이변, 즉 21세기 기후변화를 윤리적 문제로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피해와 혜택이 분리되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는 기후변화가 곧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전염병 창궐

무더위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서도 열기가 만들어지는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뜨거운 날씨와 함께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학자들은 이러한 폭염 현상은 거의 지구 전체에 나타날 가능성이 90~99%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글로벌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의 핵심은 금세기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학술용어가 '온난화'라는 말과 함께 친숙하나 위협적인 일상용어로 우리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교란, 나아가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인간의 생존에도 위협을 줄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환경전염병이 몰려오고 있다. 기온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5대 감염병인 쯔쯔가무시, 뎅기열 등이 증가하고, 한파로 호흡기, 심장 질환 환자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기상재해는 정신 질환도 초래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보고가 있다. 미국의 수학자인 마크 제롬 월터스는 저서 〈에코데믹스(ECODEMICS, 생태병)〉서 "인류의 지구환경 및 자연의 순환과정 파괴에 의한 생태계 변화가 신종 전염병과 감염병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전통적 의미의 '유행전염병 (Epidemic)'이 아닌 '생태병(Ecodemic)'인 '환경전염병'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기후 변화는 인간에게 직 · 간접적으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의 지구적 동시성과 사회현상

지난 밀레니엄 동안 인류는 중세온난기(Medieval Warm Period), 소빙기,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동을 경험했다. 특히 17세기는 기후변동의 절정으로서 '17세기 위기론(Seventeenth Century Crisis)'이 대두되었던 소빙기 시기였다. 지구사적 관점에서 소빙기의 중요성은 '동시성'에 있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서 이상저온현상, 흉작, 기근, 폭동, 반란 등이 목격된다. 21세기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인 '동시성'이라는 사실이 17세기 기후변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산업화 이전의 한반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존재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조선의 1440년 무렵과 1600년 전후, 그리고 1700년 전후로 한반도에서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가뭄, 호우, 폭설 등에 의한 피해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재이고(災異考)〉에 나타난 17세기 당대의 기후 관련 기록으로 당대인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적응해왔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17세기의 조선은 매우 빈번한 기근이 있었다. 1620년대 인조대의 병정대기근, 1670년대 현종대의 경신대기근, 1690년대 숙종대의 을병대기근이 주목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대기근이 발생했다. 이러한 동시성은 17세기 동아시아 소빙기가 지구적인 기후변동의 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준다. 17세기의 소빙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름의 이상저온' 현상과 '혹한의 겨울'이다.

조선에서는 1598~99년 겨울에 함경도 앞바다가 결빙했다는 흥미로운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조선 500년 동안 16세기~19세기 전반까지 동해의 결빙은 적어도 9차례 보인다. 임진왜란이 있었던 이 기간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한랭한 기후가 지배했던 것이다. 기후현상의 절정은 바로 1640년~1643년이었다. 인조 18년(1640) 음력 8월 충청도에 눈이 내리고 냇물이 얼어붙었으며, 다음 해에는 한여름인 음력 5월 평안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서리가 내렸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도 동시적으로 냉해와 가뭄으로 대기근이 들었다. 중국 명조의 멸망을 결정지은 1640~1642년의 대기근은 소빙기 기후변동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월에 천둥이 치고, 3월에 눈이 내리는 것도 모두 망국의 조짐인데, 영동에서 바닷물이 얼어붙은 재변은 매우 괴이하다'라는 효종의 말은 당시의 충격과 당혹함을 전해 준다. 1670년대까지 근 20년 동안 조선에서는 이러한 이상 저온 현상이 없었던 해가 거의 없었다. 한여름에 폭설과 된서리가 내리고 강한 추위로 여름에도 솜옷을 걸쳐야 할 정도로 한랭현상이 극에 달했다.

기상이변인 저온현상은 잦은 흉작으로 이어졌다. 현종 대의 경신대기근(1670~1671)은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했다. 겨울의 혹한과 폭설과 같은 환경적 제약이 미친 사회, 경제적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컸으며, 생존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 이런 상황서 의복과 연료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였다. 혹한이 국가경제, 군사방어에 미친 영향도 있다. 실제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한겨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빙기의 이상저온 현상과 혹한은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농업, 정치, 군사 및 문화, 예술, 과학, 사상, 신앙과 질병 등 당대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소빙기라는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환경 위기가 당시 조선에 미친 영향은 재해와 기근, 그리고 질병이었다. 이들 재해, 기근과 질병은 모두 소빙기 기후변동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요한 기근들이 대부분 소빙기 기후현상이 현저했을 때 '동시적'으로 발생했던 것은 바로 이상저온과 변덕스러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반도 역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인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기상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17세기 대기근은 동아시아에서 재해와 흉작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이자 소요와 반란, 전쟁, 인구감소를 추동하는 촉매이기도 하다. 17세기의 이러한 사회현상은 21세기 폭염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식량문제와 함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300년 전 당대의 현실인식을 통해 기후변화의 근원과 이상기후에 따른 인간 삶의 변화를 살펴본 것은 미래 기후변화의 전망과 대응을 위해서이다. 오늘날 폭염과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현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자명한 일이다.

온난화 해결 방법은 '숲'

한국임학회의 연구결과를 보면, 도시 내 산림이라 할 수 있는 생활권도시림면적과 열섬현상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이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며, 특광 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숲뿐만 아니라 산림의 중요성을 반증해준다. 도시보다 기온을 2도 이상 낮추는 숲의 냉각효과는 주로 주변열을 사용하는 나무들과 다른 식물들의 증산과 숲의 습기의 증발작용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은 바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이다. 지구를 둘러싼 녹색 산림들이 태양열을 흡수하고 지구를 식혀준다는 사실은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유엔의 환경프로그램(UNEP)은 "산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높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어 세계 산림이 1억 3000만 헥타르가 사라졌다고 한다.

오늘날 기후변화시대에 숲의 진정한 가치는 아름다움보다는 우리 생명과 연결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높은 기여도이다.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작금의 시대는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 관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함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인식해야 하며, 장자식으로 말하면, 만물제동(萬物齊同)의 사유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각각 존재의 지평을 인정하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전환하여 전 지구적인 환경운동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때, 2017년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방생법회'는 3년이 아닌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다.

또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사용 캠페인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환경보존 활동 역시 전국적, 아니 전세계적으로 확산 지속되어야만 지구 온난화를 줄여 지구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텀블러를 하루 한 번만 사용해도 1년에 300만 그루의 나무를 지키고, 2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정연정(동국대 생태문화교육연구센터장)

현대인의 익명성을 극복시킨 '시테크' 최고 고등한 육임모바일 APP '장중비결(掌中秘訣)' 출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綜合 韓國品

'장중비결' 종합 중국본 '장중비결' 종합 일본판 동시 발매

본 육임모바일 앱 '장중비결'은 한국육임학회와 미국동양학대학교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가 협력해 '한국품', '중국본', '일본판'으로 동시 개발했다.

■ 만나는 시간, 전화 받은 시간, 문자 받은 시간으로만 상대의 모든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고등 '시테크' 육임모바일.

APP '장중비결(掌中秘訣)' 완성품 출시!
'정확도' '간편성' '착목도' '효과성' 보장!

■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도, 전화통화를 해도, 문자를 받아도 그 순서대로 메뉴에 나타나 있는 '다음사람' 단추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모든 정황은 물론, 비밀사안까지 적시되어 있는 18년에 걸쳐 이룩해낸 IT한 쪽의 정수(精粹)!

■ 적용대상인 : 신규거래자, 계약상대자, 신규채용자, 동호회원 영입자, 이해관계자, 상하위계자, 혼담진행자, 매입의사자, 설득수요자, 경쟁자, 이외방문자, 절교여부자, 친교여부자 등과의 이해 우열 세력 원조 가해 승부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놓았다. 즉 되는가, 안 되는가? 좋은가 나쁜가? 진행할까, 물러날까? 에 대해서다.

■ 항목별 당면사 판단 : 임신출산사, 소송사, 여행사, 가격고하사, 묘지사, 승진사, 전근이동사, 퇴직사, 발탁공명사, 구재사, 시험합격사, 취직사, 선거당락사, 가정사, 매매사, 가출사, 혼인사, 질병사, 사망여부사, 투자사, 채용사, 경기승부사, 색정의심사, 이사길흉사, 농작물재배사, 귀신침범사, 부정침입사, 산소탈사, 근친상간사, 길방 택일, 기후사 등 등에 대한 큰 판단과 이외 100여 가지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의 답을명확하게 밝혀놓았다.

■ 본인의 사회계층, 상대방 신분, 직급, 부귀빈천의 구분 및 진로, 적성 등 일생사 판단 : 내 귀착 신분은 무엇일까? 상대의 신분은 무엇인가? 본인과 상대방의 일생은 부귀빈천 중 어느쪽인가? 무슨 일, 어떤 직업이 적업인가? 일생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일생 본인과 상대방의 질병은 무엇인가? 지나갈 병인가? 고질병인가? 본인 또는 상대방의 배우자는 미인인가? 박색인가? 남녀 부부 연인의 성격과 인성은 어떤 특징인가? 부부 중 누가 먼저 사망하는가? 등 등의 답을 확실히 적어 놓았다.

■ 신생아의 미래 신분의 방향, 초중고생들의 적성과 장차의 종사 분야, 청년들의 자기 진로와 신분의 정도를 스스로 예견할 수 있고, 또 본인과 관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대의 미래, 즉 귀착될 직위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어김없이 적시해 놓았다.

육임 시보(時報), 내정(來情)

만난 시간, 전화 받은 시간, 문자 받은 시간만으로 미리 알 수 있는 항목 : ○신분은 무엇인가? ○부빈 귀천 어느 쪽인가? 현재 유여한가, 곤궁한가? 무슨 일로 왔는가, 전화했는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 ○안고 있는 비밀, 고민은 무엇인가? ○어떤 鬼害, 不貞, 山所脫을 받고 있는가? 천도, 시식, 부적의 효과가 있겠는가? ○방문자의 심중은 신뢰, 고집, 설득, 불성 중 어느것인가?

■ 자기가 일으킨 일인가, 타인으로 부터 당한 일인가? ○이미 일어난 일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상대의 말이 진실한가, 진위 반반인가, 거짓인가? 등 등이 밝혀져 있다.

육임 성부(成否), 호 불호(好不好), 진퇴(進退) 여부

만난 시간, 전화 받은 시간, 문자 받은 시간만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는 판단 : ○본인이 당면한 중대사, 또는 상대와의 일이 될까? 안 될까? ○본인이 당면한 중대사, 또는 상대와의 일이 좋을까? 나쁠가? ○본인이 당면한 중대사, 또는 상대와의 일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 아니면 포기, 또는 중단해야 할까? 등등이 밝혀져 있다.

다운받는 주소 : www.aua.ac – 육임쇼핑 바로가기 –

● 종합 '장중비결(掌中秘訣)' 현금 입금 하실 분 3만원 할인 ● 가격 : 300,000원
● 농협 317-0013-9239-01 (입금자 : 천안종) / ● 문의 : 직통 010-6400-0939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AUA

각종 카드 3개월 무이자 결제

전문털이범 면도칼로 도려 佛畵 절도



1991년 3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도난된 〈사진 왼쪽부터〉 안성 청룡사 신중도, 현왕도, 칠성도. 절도범은 사찰에 침입해 면도칼로 탱화를 도려내 불화들을 훔쳤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⑮ 안성 청룡사의 도난 성보

왕실 후원 받은 고찰 청룡사
1991년 신중도 등 3점 도난
전문 도굴꾼의 소행으로 추정

조선 후기 경기 지역 화승들
참여해 조성한 귀중한 佛畵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한 안성은 넓고 기름진 토지와 삼남(三南)인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안성장터를 중심으로 인간과 물자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통일신라시대 말부터 조성된 불교문화재가 사지(寺址)와 사찰에 전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사찰 가운데 청룡사, 칠장사, 석남사 등이 대표적이다.

안성 서운산 기슭에 위치한 칠장사는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말사이다. 1265년에 명본국사(明本國師)가 창건한 대장암(大藏庵)으로 출발하여 1364년에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이 크게 중창해서 사명(寺名)을 청룡사(靑龍寺)로 바꾸었다. 청룡사라는 이름은 나옹화상이 불도를 일으킬 절터를 찾아다니다가 이곳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청룡을 보았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고려시대 청룡사에서는 대장군 김호(金瑚)와 영암군부인(靈巖郡夫人) 최 씨가 시주하여 1372년에 〈능엄경(리움 소장, 보물 제698호)〉을 5권 1책으로 묶어 간행했다. 또 공양왕의 어진을 봉안했다는 사실은 고려 말 왕실의 원당(願堂)으로 최고의 사세(寺勢)를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청룡사는 조선 전기 세조 연간(1455~1468)에 도성의 용흥사와 진관사의 기물을 하사 받을 정도로 지속적인 왕실의 후원이 있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연혁은 알 수 없다. 사찰은 1601년경에 대웅전을 건립하고, 1603년에 소조석가삼존상을 봉안한 것을 보면 임진왜란 중에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후 인조의 셋째아들인 인평대군(1622~1658)의 원찰이 되어 왕실의 후원을 받았다.

현존하는 불화 화기(畵記)와 현판 등의 문헌기록을 참조하면, 1658년에 사과(司果) 박난(朴蘭)과 명옥(明玉)이 주상삼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영상회괘불을 그리고, 1674년에 주종장 사인이 범종을 조성하였으며, 1692년에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감로도를 제작하였다. 1720년에 사간(思侃)이 사찰을 중수한 후에 사적비를 세웠고, 1745년에 법당을, 1821년에 대법당과 명부전을, 1825년 대웅전을 보수하였다.

1863년에 대웅전 불상을 개금하고, 1874년에 아미타회상도와 지장시왕도 등을 조성하였으며, 1878년에 불상 개금과 삼세불도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청룡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룡사에 소장되었던 문화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본이 남아있다.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는 본사에 소장된 성보물이 29건 22점으로, 전각별로 불상과 불화가 정리되어 있고, 뒤쪽에 암자인 내원암, 서원암, 안성봉덕포교소 등의 재산대장이 정리되어 있다.

그 가운데 봉덕포교당은 시내 비봉산에 위치하고, 1920년대 청룡사 주지 이응섭 스님이 읍내에 사찰이 없어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내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포교소 건립을 1922년 7월부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1922년 이후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조계종 총무원에 신고된 청룡사에서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신중도, 칠성도, 현왕도(1991.3.7~3.8 도난)이다.

이들 불화는 도난당하고 3일 후에 1991년 3월 11일자 〈경인일보〉에 "보물급 '탱화' 2점(點) 도난, 안성 청룡사(靑龍寺)서 면도칼로 도려내 - 사찰에 도둑이 들어 보물급 문화재를 훔쳐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새벽 2시쯤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 청룡사 대웅전(보물 824호) 법당에 있던 탱화 2점과 탁자 받침대 2개를 훔쳐 달아난 것을 이 절 승려인 김선길 씨(5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중략〉1백여 년 된 가로 2m, 세로 1.5m가량의 탱화 2점과 탁자받침대 2개가 없어졌다는 것. 경찰은 탱화를 면도칼로 긋고 훔쳐간 수법으로 보아 사찰을 상대로 한 골동품 전문 절도단의 소행으로 보고 동일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 도난 시점이 8일 새벽이고, 기존 문화재청과 종단에 신고된 수량과 다르다.

이 불화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재산대장을 통해 20세기 전반 청룡사 대웅전에 8점, 명부전에 1점, 관음전에 3점을 합하여 총 12점의 불화가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산대장에 청룡사에 현존하는 감로도와 사자도는 적혀 있지 않다. 기존 문화재청에 신고된 도난 불화의 규격은 신중도가 세로145㎝ 가로161㎝, 현왕도는 세로154㎝ 가로143㎝, 칠성도가 세로143㎝ 가로196㎝이다.

이 중 칠성도는 1917년에 고산축연이 그린 작품이다. 신중도와 현왕도의 규격을 참조하면 신중도는 관음전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왕도는 대웅전이나 관음전에 봉안되었던 것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도난 불화 가운데 조성시기와 작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숭정기원후오년(崇禎紀元後五年) 한봉(漢峰) 화(畵)"로 적혀 있을 뿐이라서 1874년인지 1878년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같이 조성된 지장시왕도의 화기에 1874년 3월 16일 미타삼존과 관음, 지장보살을 개금하고, 보처 2위와 10왕을 개채하며, 영산회상도 등을 그려 25일 전각에 봉안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1874년에 그린 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불상 개채와 불화 조성은 한봉창엽(漢峰瑲燁), 서봉응순(西峰應淳), 덕월응륜(德月應崙), 정월묘언(淨月妙彦), 금곡영환(金谷永煥) 등 19세기 후반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최고의 실력을 가졌던 불화승들이 참여했다.

〈표〉 일제강점기 청룡사 소장 불교회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조선총독부 관보				비고
소장처	종류	규격	작가 급 전래	
대웅전	괘불탱	세로 42척 가로 24척	順治15年 朴蘭 畵	1658년, 보물 1257호
	후불탱	세로 10척 가로 10척	崇禎紀元後五年 漢潭 畵	1878년, 삼세불도
	지장탱	세로 5척7촌 가로 6척	崇禎紀元後五年 漢峰 畵	1874년, 지장시왕도
	신중탱	세로 8척9촌 가로 5척5촌	〃	유출
	현왕탱	세로 5척4촌 가로 4척9촌	〃	도난 또는 유출
	산신탱	세로 2척9촌 가로 2척1촌	〃	유출
	칠성탱	세로 4척5촌 가로 7척	大正六年 文古山 畵	1917년, 도난
	팔상탱	세로 5척 가로 7척	大正四年 草庵 畵	1915년, 팔상도
명부전	지장탱	세로 3척9촌 가로 2척7촌	崇禎紀元後五年 漢峰 畵	유출
관음전	후불탱	세로 5척1촌 가로 4척9촌	崇禎紀元後五年 漢峰 畵	1874년, 아미타회상도
	신중탱	세로 6척 가로 7척	崇禎紀元後五年 漢峰 畵	도난
	현왕탱	세로 3척7촌 가로 3척	崇禎紀元後五年 漢峰 畵	도난 또는 유출
				1692년, 감로도
				20세기 전반, 사자도

기존 1634년 작(作)으로 도난신고된 신중도는 3개로 구획한 전체 화면에서 상단 중앙에 범천과 제석천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무기를 든 위태천이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공간을 천부신장(神將), 천녀, 천동 등으로 꽉 차게 채운 화면의 구도, 인물 표현, 설채법 등에서 17세기 전반의 불화로 볼 수 없어 1874년 한봉창엽이 그린 작품으로 추정된다.

현왕도는 팔곡병풍(八谷屛風)을 배경으로 중앙에 크게 염라대왕이 배치되고, 좌우로 권속을 두른 조선후기 현왕도의 기본 구성을 따르고 있다. 중앙 탁자 뒤에 현왕이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고, 머리에 천도재에 독경되었던 〈금강경〉을 얹은 관(冠)을 착용하고 있다. 현왕 좌우에 판관(判官), 녹사(綠事), 시자(侍者)가 서 있는데, 화면의 구도와 설채법 등을 고려하면 이 작품도 1874년 한봉창엽이 조성한 불화일 것이다.

칠성도는 전체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존상을 배치한 구도로, 중앙에 높은 대좌에 앉은 치성광여래는 원형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두르고, 그 밑으로 보관을 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서 있다. 그 옆으로 칠원성군과 바로 위에 칠여래가 배치되어 있다. 개별 존상의 형태와 설채법 등이 20세기 전반에 불화의 양식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안성 청룡사는 왕실의 후원과 민중 놀이패인 남사당의 후원으로 많은 불사가 가능했던 사찰이다. 이러한 후원으로 19세기 후반 전각의 중건, 불상의 개금, 불화의 조성 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 도난 불화들이 공소 시효가 지나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전시회를 통한 공개와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공립박물관에 소장된 불화부터 체계적인 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유물은 조성 사찰로 돌려주고, 도난문화재가 아닌 유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청동불 상 조성업 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불교 카리스마 '육바라밀 실천'서 나온다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⑮ 불교 리더십

우리는 일상에서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을 흔히 접하게 된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치인, 연예인, 나아가 친구나 동료에게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때의 힘은 매력이나 명성과는 다른 것으로써 특정인이 대중들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 자신의 의지대로 잘 이끄는 미지의 요소를 뜻한다.

하지만 카리스마(charisma)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1세기 중반에 처음 글자로 나타난 고대 그리스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또한 1세기에 그 말이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처음 사용될 때, 예언에서부터 치료, 방언을 말하는 능력까지 기적과도 같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했다는 사실도 잘 모를 것이다.

그리스어 χάρισμα[카리스마]는 기원 후 50-62년 사이에 쓰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처음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카리스마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즉 카리스마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겼다. 그리고 2세기에 라틴어로 글을 쓰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χάρισμα를 로마자로 옮겼고, 그로 인해 '카리스마'가 되었다. 하지만 바울이 설명했던 초자연적인 은사(恩賜) 능력은 후대 교회 당국의 무시를 당한다. 현실에 기반한 성서와 교리, 주교의 권위에 기대어서 체계를 잡아가던 교회로선 초자연적인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결과 카리스마는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 봉인되고 말았다.

사라졌던 카리스마는 20세기 초반 부활한다.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1864-1920)가 기존 권위에 도전하면서 혁명적이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지도자의 능력으로 카리스마를 내세운 것이다. 이때부터 카리스마는 종교적 차원의 초자연성에서 세속적 차원의 자연성의 의미를 점차 지니게 된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였던 카리스마가 신성(神聖)을 의미하였다면 막스 베버가 사용한 카리스마의 의미는 반(半) 신성을 뜻하는 정도로 변화한 것이다.

지도자 권위 지칭서 개인 매력 의미로

그런데 막스 베버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카리스마는 지도자의 권위나 재능에서 개인의 매력과 자질을 가리키는 말로 다시금 변화하게 된다. 이제는 성직자의 신성 내지 지도자의 반 신성이 아닌 무(無) 신성인 미지의 힘으로 의미가 변한 것이다. 이러한 신성의 배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더욱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중은 종교지도자에게서 일반 사회지도자와는 다른 리더십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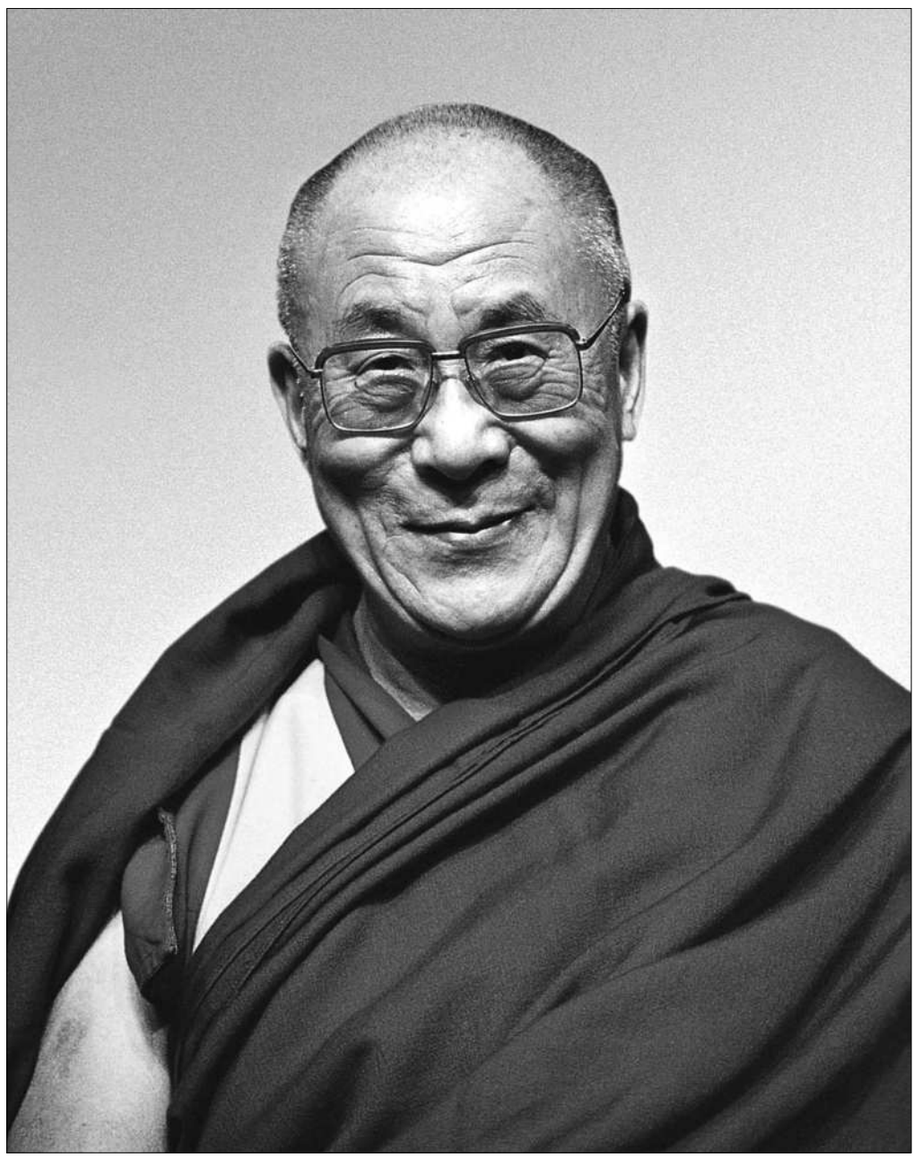
그렇다면 신성과 권위가 약화된 현대사회에서 종교지도자로서 불교지도자의 카리스마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불교지도자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점차 세속화되고 합리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막스 베버는 사회가 합리화되면 될수록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세계 역사는 곧 초월적이고 마법적인 힘으로부터의 해방 과정, 즉 합리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볼 때 신성한 후광을 지닌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세계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가치보다는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가 인정을 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던 비합리적 관행은 사회가 합리화되고 개인주의화됨에 따라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카리스마가 발현되는 고유 영역이었던 종교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찰의 경우에도 신도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권위적인 스님 대신에 친절하고 격식이 없는 스님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합리화 사회서 카리스마 선호↓
친절하고 격식없는 스님 좋아해
육바라밀 실천이 지도자 덕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지도자는 일반 사회지도자와는 무언가 달라야한다는 점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만일 종교지도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된다면, 일반 사회지도자가 동일한 물의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혹독하게 비난을 받게 된다. 사람들이 종교지도자에게서 여타의 사회지도자와는 다른 리더십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 기대의 근원에는 덕성(德性)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지도자는 높은 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신도를 이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종교지도자가 아닌 일반 사회의 관리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과거엔 종교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초자연적 능력 혹은 제사장적 권능인 신성과 권위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합리화하면서 초자연적 · 제사장적 능력과 권능보다는 일반인과는 다른 높은 덕성에서 종교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찾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런데 덕성(德性)은 '어질고 너그러움'을 뜻하는 바 신성 혹은 권위와는 사뭇 다르다. 어질고 너그러움은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하심(下心)] 타인을 위하는[봉사] 것이다. 과거 종교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신성과 권위였다면 현대 종교지도자의 카리스마는 정반대로 하심과 봉사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종교지도자는 자기를 낮추어 세상에 봉사하여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타행의 삶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가 보살(菩薩)이다. 보살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삿뜨바(boddhi-sattva), 빨리어로는 보디삿따(bodhi-satta)라는 말의 음을 모사한 것이다. 이 원어를 정확히 음사하여 보리살타(菩提薩唾)라고 쓰기도 한다. 그리고 원어에서 깨달음을 뜻하는 보리가 '보'로 축약되고, 생명체 즉 중생을 뜻하는 살타가 '살'로 축약되어 보살이라 통칭된 것이다. 보살을 한 마디로 말하면, '깨달음(보리)을 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覺有情]의 의미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로 변화한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 특히 자신을 구제하기에 앞서 먼저 남을 구제하는 이타행(利他行)으로서의 보살행이 강조되었다. 이는 보살의 삶은 곧 봉사의 삶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지도자, 대사회적 역량인 육바라밀 실천해야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실천행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이다. 육바라밀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이기도 하며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등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승불교의 방점인 자기의 인격완성을 위하여서는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으로도 충분하지만, 대승불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살의 수행법으로서 육바라밀을 독자적으로 설하였다. 그것은 팔정도가 자기완성을 위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타행(利他行)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시와 인욕과 같은 대사회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법으로 알맞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의 지도자로서 보살은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수행자인 것이다.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은 남에게 자신의 재물이나 지식을 나누어주거나,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시의 근본 자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시한다는 상(相)조차도 없이 보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하심으로 아상(我相)을 없앨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은 계율을 지키는 것, 즉 생활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란 누구보다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랫사람에게는 법을 준수하라면서 자신은 예외적으로 행동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불교지도자는 윗사람의 권위를 내세워 법과 규범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은 참기 어려움을 참고, 행하기 어려움을 능히 행함을 말한다. 물질생활에 있어서는 내핍을, 정신생활에 있어서는 극기를 인욕이라 한다. 어떠한 물질적 빈곤에도 불만 없이 안빈낙도(安貧樂道)하고, 또 어떠한 정신적 핍박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 인욕이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불교지도자는 인내로써 중생고를 해소해야 한다.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은 끊임없는 노력을 말한다. 안으로 인격 완성을 위하여 끝없는 번뇌를 끊고, 밖으로는 무수한 중생을 피안으로 인도하는 일은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보살은 중생구제에 끊임없는 노력을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끝이 없는 미래에까지 영원히 계속해 가는 존재이다. 어떠한 장애나 난관이 오더라도 굴함이 없이 게으르지 않은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믿음직한 불교지도자의 모습이다.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은 "생각하며 닦는다." "생각을 고요히 한다."는 뜻이다. 이는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번거롭고 소란한 마음을 진정시켜 정신을 통일하는 수행방법이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도 늘 평온한 시절만 보낼 수는 없다. 예기치 못했던 사태에 직면하여 당황하지 않고 사람을 이끄는 것은 불교지도자가 갖춰야할 중요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지혜바라밀(智慧波羅蜜)은 선정에서 얻어진 지혜이다. 지혜는 범어 반야(般若)의 번역으로 이것을 예지(叡智), 선험지(先驗智), 직관지(直觀知)라고도 한다. 이는 듣고 보고서 배워진 유소득(有所得)의 지식과는 다르다. 감성과 논리 또는 지식을 초월한 예지와 선험지 그리고 직관지는 불교지도자의 참다운 지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카리스마가 과거와는 달리 신성과 권위가 배제된 의미로 변화하였으며, 불교지도자는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봉사를 하여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제 현대사회의 불교지도자는 신성 혹은 권위의 카리스마로써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심의 카리스마로써 이 세상에 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겸손하지 못한 일부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카리스마를 하심과 봉사에서 찾지 못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가사장삼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간혹 범해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는 마치 부처님 불상을 이고 가는 당나귀가 사람들의 절을 받고 우쭐해져서 부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국임을 알아야만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8학년도 2학기 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조인각 스님	월	편입생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이기봉 스님	수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조현성 스님	목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최원허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학 개론	심만춘 스님	화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 (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8년 8월 20일 (월) ~ 8월 27일 (월)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1)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2018년 불교학과 5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9월 6일(목) 오후 1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목	① 근본불교 (아함경 2) ② 반야심경 ③ 유식불교 ④ 인도불교, ⑤ 중국·한국불교 ⑥ 법화경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최봉수 교수, 최종석 교수, 김형준 교수, 묘주스님, 최종남 교수, 정병조 교수,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박종 교수
2년차	과목	⑦ 화엄경 ⑧ 정토불교 ⑨ 대승불교와 밀교 ⑩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⑪ 불교문화와 미술, ⑫ 선불교
	교수진	정엄스님, 김형준 교수, 주명철 교수, 정성준 교수, 이미령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 교수

■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저녁반·통신반)
■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8월 1일부터
■ **문 의** : (02)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 4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9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반 [9월 5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반** [9월 8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지구, 내 몸같이

내 몸은 지구와 같고, 내 몸속의 생명들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습니다.
지구는 우리와 함께 돌아가는 생명체입니다.

대행선사 법어



만물만생이 더불어 사는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GREEN EARTH

녹색 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생명들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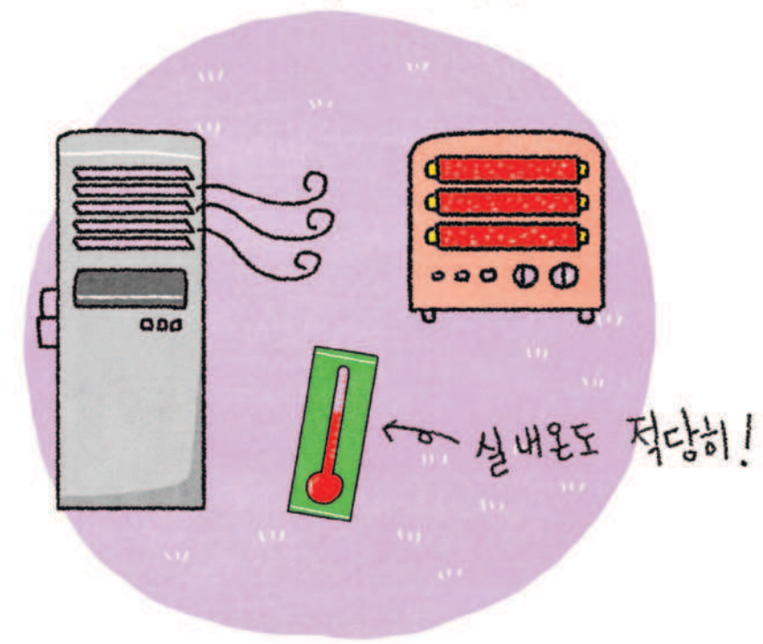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에너지 절약은 쉬워요!



'분리수거하기' 약속해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실패한 수행 없다! 더욱 정진하라”

부산 재가하안거 해제, 즉문즉설로 수행 독려

부산 재가자 하안거 해제법회에서 스님들이 즉문즉설로 더욱 수행하고 정진할 것을 독려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8월 14일 부산 안국선원교육관에서 무술년 재가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해제법회는 즉문즉설로 진행돼 재가안거에 동참한 불자들은 평소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스님들은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즉문즉설은 법회 전 모은 질문을 정리해 차례로 질문하고,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 수석부회장 원허 스님, 부회장 만초 스님, 포교원장 하림 스님, 교육원장 정관 스님이 차례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안거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일정으로 수행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빠지고 나니 제대로 못했다는 자괴감에 힘들고 억지로 수행 안거일을 채웠다”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심산 스님은 “수행은 하고 싶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숙제처럼 풀어 나가다보면 언젠가는 습이 되고 생활이 된다”며 꾸준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대중은 △수행 중 타인의 허물이 보일 때 극복 방법 △안거 후 수행 성취감 부족 △채식 후 역겨운 주변 냄새 △주변인과의 다툼 등 수행 중 겪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석부회장 원허 스님은 “채식을 하면 냄새로 힘이 들기도 하지만 적응하고 견디는 것 또한 수행”이라며 “선방을 다니며 수행할 때 직접 겪은 일이라 잘 알지만 그렇게 견디는 것이 우리들 삶”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님들은 자신이 수행 중 겪은 이야기들을 재가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 여름나기, 우리가 책임져요”

김해 길상사 성현덕회, 매년 경로당 자비나눔

김해=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찰 신행단체가 지역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말벗이 되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김해 길상사(주지 혜수) 성현덕회는 8월 14일 지역 내 경로당 16개를 방문하고 ‘찾아뵙는 경로당 위문 방문’을 실시했다. 어르신 위문에 앞서 찾아간 길상사 법당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상자와 떡, 선물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성현덕회 불자들은 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듯 활짝 웃었다.

포장된 상자들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으로 마련한 효선물이다. 무더운 폭염에도 성현덕회 회원들은 “마치 멀리 있는 친정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처럼 걸음 가벼워 행복하다”면서 미소 지었다.

성현덕회 회원들은 법당에 쌓아놓은 선물을 들고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 나기와 건강을 기원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성현덕회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성현덕회는 매년 여름을 맞아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길상사 주지 혜수 스님은 무엇보다 효 사상을 배우는 나눔 활동을 바탕으로 성현덕회 회원들이 바른 불자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주지 혜수 스님은 “경로당 방문은 무엇보다 성현덕회 불자들이 효 사상과 차별 없는 마음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활동”이라며 “부자와 가난한 어르신으로 구별하는 마음 없이 진실하게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실천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아울러 어르신들의 행복도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역 16개 경로당 방문하며
먹거리 등 선물 나눠 ‘귀감’
2011년부터 소외계층 위해
십시일반 기금 모아 자비행

성현덕회는 2011년 자비 실천을 강조하고 실천해 지역 내 바른 견해를 갖춘 불자 양성을 위해 창립됐다.

주지 혜수 스님은 “길상사가 위치한 김해는 가야불교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불교계 자비나눔이 부족하다. 결국 불교가 지역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진단하며 “가야불교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불교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따르는 불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 길상사 성현덕회 회원들이 ‘찾아뵙는 경로당 위문 방문’에 앞서 길상사 법당서 선물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박예순(57 · 명지심) 성현덕회 국장은 “1년 동안 행사할 때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바쁠 때도 있지만 보람이 많이 된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활동이지만 성현덕회 회원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현덕회는 창립 후 자체 회원을 모집하고, 나눔을 위한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지역 내 소외 된 이웃과 병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성현덕회는 현재 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맞춤형 자비행을 실천 중이다. 2월 겨울에는 졸업을 앞둔 초등학생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는 컵 연등을 손수 제작해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방문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라면 탑 쌓기를 진행한다. 8월에는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위문 나눔, 김장철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김장을 나누는 등 연중 자비나눔을 쉬지 않고 있다.

범죄 없는 부산바다 만드는 캠페인

사하경찰서 경승실, 범죄예방 홍보 앞장서

부산 사하구 스님과 불자들이 범죄 없는 바다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산 사하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혜원)은 8월 9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사하 경찰과 경승이 함께하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경승실장 혜원 스님, 사하구불교연합회장 법인 스님, 총무 송우 스님, 박창식 사하경찰서장 등 경찰 30여 명과 불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캠페인에 앞서 경승실은 다대포해변 공원관리센터 2층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혜원 스님은 “우리 불교가 깨끗하고 행복한 부산이 되도록 함께 하고 노력하겠다”며 “더운 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는 경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박창식 사하경찰서장은 “항상 매년 여름 찾아와 격려해주시는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치안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명불원, 9월 7일 제3회 가을음악회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이 가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제3회 동명불원 가을음악회 ‘부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를 9월 7일 오후 6시 30분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음악회는 가람소리합창단 공연 및 윙크, 홍원빈 등 초대가수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동명불원은 무더운 여름 지친 지역민에게 선물을 선사하고자 푸짐한 경품을 마련했으며, 부산남구청에 사랑의 백미 쌀 10kg 100포를 전달한다. 아울러 제1회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린다.

동명불원은 “뜨거운 폭염에 지친 지역민을 모시고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모두가 하나 되는 나눔의 자리를 열고자 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힘든 군생활 속 ‘단비’ 같은 위문

태고종 전북종무원 등 육군부사관학교서 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무더위 폭염 속에 힘든 훈련과정을 수행하는 부사관 후보생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은 8월 12일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에서 부사관 후보생들을 위해 법회를 열고 위문공연을 선사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폭염 속에서 진행된 법회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 총무국장 송운 스님, 교임국장 현진 스님, 원경사 자비 스님,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명섭 호국충국사 금강회장,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370여 명의 부사관 후보생들이 참석했다.

자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사관 후보생 여러분은 나라의 기둥이고 명품”이라며 “나와 국가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열심히 정진해달라”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와 육군부사관 후보생들이 위문법회서 함께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진성 스님은 법문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는 부사관 후보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과거 그 누구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선 데는 조국을 사랑한 이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런 뜻을 이어받은 여러분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폭염 속에 훈련을 소화하다보면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에는 마이산 탑사 봉사단 이재현 거사의 사회로 위문공연이 펼쳐졌다. 탑밴드의 신나는 난타공연과 색소폰 공연, 진성 스님과 혜인정사 진송 스님, 혜인정사 부자들로 구성된 색소폰 연주팀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 진안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댄스팀은 법당을 가득 메운 부사관 후보생들을 매료시켰다.

이날 위문법회에서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마이산 탑사는 장병들을 위해 떡볶이와 아이스크림을, 또 진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제공했다.

법회에 참석한 심윤지 부사관 후보생은 “임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고된 훈련 속에서 신앙의 힘을 비롯해 이러한 위문 행사들이 큰 버팀목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위문 행사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무사히 임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섭 육군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 금강회장은 “호국충국사 금강회에서도 불자 후보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야전에 나가서도 불자 부사관으로서 군불교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음양오행 동양철학

내가본 운명학

신개념 지침서

운명은 사람을 지배한다.
운명을 알고나면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숙명(宿命)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수 있다.

동양 철학인 음양오행 사상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과 지구의 자전 공전의 움직임과 삼라만상의 신비하고 오묘한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문으로서 자연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년.월.일.시.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것을 추명학으로 풀이하면 사주팔자(四柱八字)라 하는데 사주팔자에는 숙명(宿命)과 운명(運命)으로 분리해서 정해진다.

– 본문中에서 –



양정진(덕광스님) 著 / 신국판 / 268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금강삼매경요해,
드디어 나왔다!!

천년千年의 보물,
불지혜佛智慧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그토록 찾던 불佛지혜 깨달음의 보물!
성불成佛의 심오한 비밀 지혜통로와
그 지혜 과정을 상세히 모두 밝혔다.
깨달음 보살세계 무위지혜의 차별차원
대승, 일승, 일불승, 불승, 불佛의
최상 깨달음과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최고지혜경전, 금강삼매경 불지혜로 꿰뚫어 자상히 두루 밝혀 5종금강삼매경(고려장경·대정장경·원효론·원징주해·주진통종기)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신국변형판 / 936쪽 / 정가 70,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분계두수 심오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新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817쪽 / 50,000원

사주풀이의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琪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공연히 망상에 젖지 말며, 오직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지어다..

〈금강경〉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동이민간의술학회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 각종 고질병 치유 전문 도량
전문치유사 교육생모집
심복사 지덕 합장
010-5758-8689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263-46 (북가현리 8-1)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교수
010-4844-700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상(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태명상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뇌강기도법 전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범음범패 학인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범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 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2세 이하
(충남 지역 사찰)
041-673-8385

부전스님 모십니다

(지역 : 경북)
010-2078-9595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6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배로운 부처님의 명호를 즐거이 들어서 아는 사람은 나고 죽는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써 고생하지 않으리라.

〈살담분타리경〉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한옥 법당. 한옥 요사채. 토지 2,700㎡
- 마을 주변 사찰. 기도 도량. 위치 좋음.
- 양도 : 11억 5천만원.(융자가능함)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7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양평사찰(급)안내
- 산중기도도량.토지1,300㎡
- 목조한옥법당. 요사채. 주차장
- 주변 산사찰 위치, 전망좋음
- 스님20년 계셨던 사찰 양도
- 양도가액 : 2억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토 굴 안 내
- 위치: 신림 IC 15분
- 넓은주차장에서 바로 산으로 연결
-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환상적인 전망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대지 639평, 건평 60평
- 방3, 화장실3, 심야전기, 매우 따듯, 마을 상수도
- 가액 : 4억 2천

010-6399-337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
◎ 부지 : 1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11억 3천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00평 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근교 성주
- 아담한사찰, 대지 220평 (실재사용 약 300P)
- 본채1,황토방1,법당1,명상실1, 방4,욕실2,마당화장실1
- 매주 일요법회중.
- 가격 : 2억3000만원

010-7313-456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인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4억 5천

010-3124-3952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 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602-96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빈집 방2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 보증금 150만, 월세 20만

011-759-0183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일본 포교원 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 재래시장 입구 한국인들 집중 거주지역
- 2017년 건립, 3층 건물 전체사용, 각층20평,법당,신중당,공양간, 접견실,침실,휴식처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 안내함
- 가액 : 문의 후 상담

010-3545-5060
일본 080-5358-5060
무료 070-8836-5060

15년 기반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 3개, 60평
- 2층 건물, 옥상 60평 사용
- 초기설비 : 3000만원
- 보증금 1000만,월세50만원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 산림도 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서동
- 전체면적 : 181평
- 법당 지장전, 요사채,
- 별채,산신각,종무소 외 넓은마당
- 사찰외 넉넉한 주차장
- 조용하고 아담한 야산밑 평지에 위치한 도량
-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아늑하고 조용한 사찰
- 가액 : 6억8천만원

문의전화 010-8718-5529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읍내5분거리
- 평수 : 약1,700평 • 가액 : 14억
- 대웅전1동, 삼성각1동
-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탑높이9m 30㎝ 둘레13m 돌탑108개 요사채2동
- 정자각1동,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열설치,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즉시법회가능

033-562-0448

사찰(급)안내
- 위치 : 고성(위치 좋음)
- 대지 : 200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40평
- 상태 양호(수리완료)
- 가액 : 3억 5천

010-9485-9318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 신도시
- 신축 2년
- 대지 470평
- 건물1층 60평, 2층 60평 식당 23평, 산신각 7평
- 법당안 1년등 1,450개
- 양도가 13억

주인직 055-346-29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집현면
- 대지 : 약 1,000평, 산 약 1만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25평, 산신각 3평, 기도방1칸
- 가액 : 5억 4천 8백만원

010-6520-585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50평, 법당 삼불존, 지장보살님, 산신각, 삼층석탑
- 주방, 방4개, 샤워실, 집기 일절
- 스님 건강상의 문제로 급양도
- 양도 : 6천5백(즉시 법회가능)
- 입구 석간판

문의처 010-3356-191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법당,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 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
- 법당 : 아미타불
- 평수 : 141평
- 가액 : 1억 1천만원

연락처 010-3697-3521

사찰(급)안내
- 위치 : 고양시 원당 원당역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
- 법당 60평. 10년째 하던 자리 입니다
- 확장이전 관계로 양도합니다
- 4층 중 2층 대웅전1,삼성각1,용왕전1, 화장실2,방3개,부엌,베란다,에어컨5대,
- 가액 : 2천에 월80만원, 시설비는 둘러보시고 판단하셔서 양심껏 주세요. 즉시법회 가능함

연락처 010-6795-157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7-25
- 시장을 끼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 주지스님이 일본가시는 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자 합니다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102-5102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대지 : 70평 (2층건물)
- 1층 : 30평 (방3개, 실내화장실 2개)
- 2층 : 25평(법당, 상담실)
- 도시가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천, 월 80만원

010-7311-5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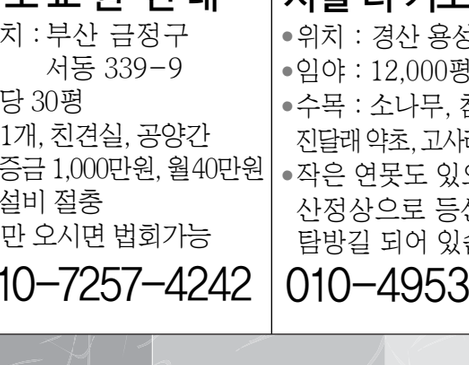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3, 화장실 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교통편의,지하철 1호선 안지랑이역에서 5분거리
- 보증금 1천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1천만원

010-9735-8032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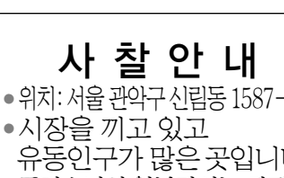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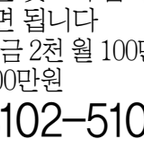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사찰(터)안내
- 위치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산 약 17,000여평
- 공시가 반가격 급 양도
- 공시가 60억
- 계약 후 묘지 이장 조건
- 지불가능한 분만 상담가능

010-3184-5362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 125평 중 건평 : 100평
- 법당 :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 5천세대 부근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019-538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243
- 바다 5분거리. 맨 윗집 앞, 뒤 산 둘러 쌓여있음 부처님 석상 되있음
- 대지 : 200평(정부지)
- 가액 : 1억
- 허가 유, 건물 없음(폐가)

010-7697-7684

명당 절 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 평수 150평
- 평당 70만원(조절 불가)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 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6억(융자 5억 5천 안고 11억)

010-9567-0813

“음악서 채우지 못한 삶, 불교로 충족”

에드워드 사이몬, 잡지 인터뷰서 불교인연 밝혀

박정현 객원기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에드워드 사이몬(Edward Simon · 49)의 음악활동에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불교’다. 그는 음악으로 충족되지 않는 삶의 가치를 불교에서 찾았다고 말한다. 또 불자들에게 과거의 한 좋은 경험에 집착할수록 결국 현재를 놓치고, 그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불교 잡지 ‘트라이시클(Tricycle)’이 최근 그와 실시한 인터뷰 일문일답.

Q.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12살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떻게 불교에 빠져들게 됐나.

A. 20년 전 나는 스스로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것(목표)은 실질적으로 내게 ‘인간 존재’로서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나는 삶에 많은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불교에서 내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방법을 찾았다.

불교의 네 가지 범주(거룩한 마음)인 자애 · 연민 · 타인 재산에 대한 축하 · 평정, 즉 자비희사(慈悲喜捨)는 나에게 큰 감명을 줬다. 타인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인간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은 나를 매우 근본적인 상태로 연결해 준다.

세계 최고 뮤지션 목표 세우고
본질적 인간에 대한 갈망 지속
‘자비희사’ 가르침 깨닫게 된 후
존재 자체 대한 ‘감사함’ 느껴

Q. 불교가 음악적인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A. 불교가 나의 작사와 작곡에 영향을 준 것은 매우 ‘무심코’ 일어났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더 잘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더 나은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불교의 길에 들었을 때 내 음악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주길 원했다. 그 전에는 생각해본 적 없던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음악을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불교 실천에서 배우는 것처럼 ‘의도’는 매우 강력하다. 만약 그 의도가 선량하다면 저절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에드워드 사이몬(Edward Simon). **사진출처=트라이시클**

Q. 재즈와 클래식 장르를 라틴 아메리카 음악과 결합한 것으로 유명하다. 어떻게 할 수 있었나.

A. 나에게 있어서 음악 구성은 고전 장르에서 가장 정교한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반대로, 순간순간의 즉흥 연주는 연주자 간 대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재즈라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수년 동안 위대한 고전 작곡가의 작곡을 연주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표기법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여기서 ‘표기법 기술’이란 명확한 방법으로 (듣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Q. 음악적 우상과 불교 멘토는 누군가.

A. 베트남 불교 스승 ‘틱낫한’은 나를 계속해서 격려한다. 나는 그의 책에서 불교를 배운다. 2013년 틱낫한의 메인 센터인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서 열린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좋은 기회가 있었다. 그건 놀라운 경험이었다. ‘놀라운’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 내가 (글로)배운 가르침을 매 순간 진정으로 구체화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음악의 경우에는 나는 트럼펫연주가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를 열광적으로 추종한다. 게다가 그를 둘러싼 몇몇의 음악가들, 색소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웨니 쇼더나 키보디스트이자 작곡가인 킥 코리 등도 좋아한다.

Q. 음악가들이 몸 밖에서의 경험이나 완전한 존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무대 밖에서는 특정 명상의 효과와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이런 것들 경험한 적 있나.

A. 그렇다. 미국의 재즈 플루리스트 허비만과 함께한 콘서트가 생각난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에서 열린 재즈 페스티벌이었다. 나는 20대 초반이었다. 그때의 느낌을 생생히 기억한다. 연주하는 동안 전체적으로 나 스스로 자아가 사라진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그와 함께한 순간 음악과 온전히 연결된 것처럼 느꼈다. 내가 거기에 없는 것과 같았다. 근데 나는 완전히 거기 있었다. 그 경험은 매우 즐거웠다.

Q. 그 경험을 되풀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

A. 그렇다. 하지만 모든 일은 힘들이지 않은(자연스러운) 감각과 함께 정확히 일어났다. 그 다음날 밤이나 다음 콘서트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싶은 자연적인 욕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면 결국 그것을 잃는다.

Q. 그건 마치 한 순간 경험에 대한 애착의 한 형태처럼 들린다.

A. 맞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든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도리어)배우게 된다. 그러나 초반에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나는 그 후로 여러 밤을 그날 밤과 비교해 봤다. 나는 “오 세상에, 오늘 밤 내 연주가 싫어”라고 느끼거나, 또는 음악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비교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다. 특히 아티스트들의 초창기에는 더욱 그렇다. 나에게 나쁜 느낌을 남겼다.

그 무대,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날 밤을 재현하는 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배웠다. 그날 밤의 나는 그날 사라졌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다.

“유서 깊은 낙서 보러 절에 오세요”

日 고찰, 오래된 낙서 공개해 관광객 입소문

17세기부터 근대까지 참배자들이 남긴 낙서를 보기 위해 사찰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낙서의 내용은 불평불만부터 소원, 일러스트까지 다양하다. 이 재미난 절을 8월 10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사가현 나가하마시(長浜市)에 소재한 일련종 사찰 묘류지(妙立寺)는 400여 년 전에 세워진 사찰이다. 이곳은 당시 지역 영주가문의 기원소(祈願所)로 지정되어 영주가 직접 영지의 안녕을 위해 참배를 오던 절이다. 이로 인해 절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다양한 계층의 참배자들이 몰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묘류지는 이와 함께 숨겨진 보물을 가지고 있다. 바로 중세부터 근대까지 약 300년의 연대차를 가진 낙서들이다. 이 낙서들은 중세에 순례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방 안 가로 2.8m, 세로 2m 가량의 내벽과 기둥에 쓰여 있다. 낙서는 천장 바로 아래까지 빼곡하게 적혀있다. 묘류지 측은 “중세에 일련종 신자들에게는 일련종 사찰들을 순례하는 ‘천개소 참배’ 풍습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낙서들이 남게 됐다”고 전했다.


벽에 그려진 낙서들을 설명하는 주지스님. **사진출처=산케이뉴스**

타 지역의 일련종 고찰에도 낙서가 종종 남아있지만 묘류지처럼 많은 양의 낙서가 완벽히 보존된 곳은 드물다.

낙서들은 일련종의 신앙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순례자에게 이불을 빌려주지 않는 인색한 절’과 같은 불평, 상투를 튼 남자나 가문의 문장과 같은 독특한 일러스트들이다. 또 남겨진 연호와 지역들을 통해 시기와 당시의 교통이동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미노부산대학 모치즈키 신쵸 교수는 “이렇게 많은 낙서들이 남은 절은 본적이 없다. 생생한 신앙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불교민속자료”라며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서들은 지금까지 비공개였으나 시의 관광협회가 몇 년 전 시범적으로 시행한 관광안내에서 호평을 받으며 꾸준한 재개 문의를 받아왔다. 이에 묘류지는 관광협회와 협의해 창고로 사용되던 방의 실내를 정리하고, 남아있는 낙서들에 대한 간략한 조사 후 공식 관광자원으로 공개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첫 공개에서 낙서들을 관람한 참배자들은 “이렇게 낙서가 남아 있는 절은 처음 봤다” “재미있는 낙서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장지문에 그려진 만화캐릭터 ‘눈길’

일본 임제종 사찰, 새 장지문 그림 제작

지난 8월 8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임제종 본산 타이토쿠지의 산내암자 신쥬안에 특별한 그림이 생겼다고 특별 보도했다. 400년 전에 그려진 장지문의 그림을 현대 작가들의 그림으로 교체한 것이다. 만화가, 애니메이터,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다양한 경력의 작가들은 각자 불교를 모티프로 한 그림을 그려냈다.

신쥬안은 1491년 창건된 고찰이다. 일본에서는 민간설화로 유명한 잇큐(一休)선사가 주석한 것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이 신쥬안의 방장(方丈)에는 400년 전 화가로 유명했던 소가 쟈소쿠, 하세가와 토하쿠 등이 그린 장지문 그림이 보존돼 있다. 이 그림들은 현재 각각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신쥬안은 문화재로 지정된 그림들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장지문의 그림도 함께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신쥬안 측은 “이 절에 주석하신 잇큐선사는 일본의 보화(普化)선사로 불리며 기행으로 중생들을 제도했다. 그런 분이 계셨던 절인만큼 장지문의 그림도 자유분방한 그림을 걸기로 했다”며 새로운 그림의 콘셉트를 전했다.


새로 그린 장지문의 그림을 설명하는 만화가 키타미 켄이치 씨.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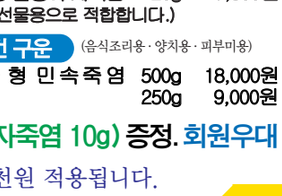
신쥬안의 주지 야마다 소슈 스님은 도쿄의 참선모임에서 인연이 된 작가들에게 의뢰했다. 일본의 유명 만화가 키타미 켄이치, 세계적인 비디오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미술 감독 카미코쿠료 이사무, 애니메이터 야마가 히로유키(山賀博之) 등을 비롯해 총 6인의 현대 작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작업에 착수, 총 45면에 달하는 장지문에 각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키타미 씨는 ‘낙원’을 주제로 하여 16면의 장지문에 자신의 만화캐릭터들을 사용해 연회의 모습을, 카미코쿠료 씨는 금박을 사용한 관세음보살과 신중들, 야카가 씨는 생과 사가 함께하는 세계라는 주제를 수묵으로 그려냈다.

그림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관세음보살님 청정성지 관세음보살님
기도삼매 친견 일천성불 받는 도량
미타산 불관사
불사 자비 보행 25년 불사중
불자인연 행자승 구합니다.
26세 계유생 27세 임신생
34세 을축생 35세 갑자생
42세 정사생 43세 병진생
50세 기유생 51세 무신생
62세 정유생 63세 병신생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범죄경력조회 1통
(경찰서에서 발급해줍니다)
미타산 불관사 주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북길 133
전화 상담 : H·P 010-7578-678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4〉 마음의 빛, 니밋따 (호흡수행 9~11단계)

행복감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



호흡 수행을 하다가 호흡이 사라지고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불안을 느낍니다. 몸이 사라지고 호흡까지 사라지니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의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사라지는 것은 수행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아무 위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수행 과정에서 호흡이 사라지면 죽음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이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으면 빛이 일어나기 전에 어두운 상태가 되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기쁨과 행복감이 이미 충분히 계발되어 있어서 호흡이 사라진 다음 어두운 상태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호흡이 사라졌는데 빛이 나타나지 않고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은 마음챙김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챙김이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은 행복감이 충분히 계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영상

마음에 나타나는 빛인 니밋따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온갖 종류의 빛에 대한 묘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빛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 환한 영사막 같다고 말합니다. 특정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밝은 영사막 같은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부시게 밝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초기 단계의 니밋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계발되지 않은 니밋따입니다.

니밋따의 색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밋따의 색은 일상에서 보는 색깔보다 훨씬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밋따를 보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순수하고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시각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니밋따는 마음으로 보는 영상입니다.

니밋따라는 마음의 대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식, '산냐'는 지금의 경험과 유사한 것을 과거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뱅크에서 찾아 비교합니다. 그 결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가 전에 경험했던 것 중 이와 가장 유사한 '빛'으로 인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대상입니다. 시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니밋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분명한 형체를 갖추지 않고 환한 영사막 같은 '스크린 니밋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영사막의 가장 밝은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가장 밝은 부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천 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의 내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수행자에게는 제가 '불꽃놀이 니밋따'라고 부르는 니밋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니밋따는 불꽃놀이에서 불꽃이 펑펑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펑펑펑펑 폭발을 일으킵니다. 몹시 흥미롭기는 하지만 수행에 알맞은 니밋따는 아닙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아직 충분히 고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니밋따가 한쪽 구석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밋따가 마음의 중앙으로 오지 않고 한쪽 구석에 나타났다가 바라보려고 하면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니밋따는 마음의 중앙으로 옵니다.

가끔은 '복잡한 니밋따'라고 부를 만한 니밋따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이나 언덕, 개울, 나무 같은 어떤 광경이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풍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니밋따에 얼룩이 있고 오점이 있더라도 어딘가 한 부분에는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복잡한 니밋따가 하나의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인식하고, 친숙해지고, 편안해진다

니밋따 수행 단계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고 공부짓는 호흡 수행의 제9단계입니다. 수행자는 가장 유사한 시각적 경험인 빛을 빌려서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오염원이 없으면 마음은 밝게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표상인 니밋따는 밝고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 수행 중 느끼는 불안감
수행 과정서 자연스러운 일
마음챙김이 점점 강해질수록
통제 아닌 편안한 호흡 가능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인식하고, 친숙해지고, 편안해진다'는 세 가지 학습 단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를 옮기면 첫날은 대부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틀째는 훨씬 쉽고, 사흘째는 어려움 없이 잠을 이룹니다. 몸과 마음이 그 환경에 친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새로운 환경에 어떤 위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그 환경과 친숙해지게 됩니다. 친숙해지면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학습의 세 단계입니다. '인식하고, 친숙해지고, 편안해진다'는 학습 단계는 수행의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흡 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며 되묻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호흡 수행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호흡 수행의 초기에 수행자는 호흡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호흡 수행은 상당히 거친 것이 됩니다. 수행자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행자는 호흡 수행과 친숙해지고 결국 편안하게 호흡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니밋따가 일어났을 때 할 일

니밋따가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니밋따에 밝음과 즐거움을 부여해야 합니다. 저는 니밋따에 윤을 낸다고 표현합니다. 점점 더 밝고 기쁘고 에너지가 가득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 수행의 제10단계인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며 공부짓는 단계입니다.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니밋따를 멈춰 있게,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 수행의 제11단계인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며 공부짓는 단계입니다.

깊은 놓아버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니밋따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밝아졌다 어두워지고, 이곳저곳으로 움직입니다. 몹시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동 니밋따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니밋따는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밋따 수행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니밋따는 수행자의 마음이 얼마만큼 고정되어 있는지를 수행자에게 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활동하면 니밋따도 활동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니밋따도 고요해집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무엇인가 한다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위를 한다면, 니밋따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니밋따는 이렇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니밋따는 어떻게 해야 더 고요해지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과정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시험을 보는 학습 과정과 유사합니다. 수행의 각 과정에서 마음챙김의 힘이 더 강해져야 하고 고요함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니밋따 수행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해져야 합니다.

니밋따 수행의 초기에 수행자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다른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직 선정에 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밋따 수행이 깊어질수록 소리를 듣거나 다른 감각을 느끼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다섯 가지 감각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행복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만한 행복감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감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한 행복감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행복감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감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행복감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의 행복에 대한 집착은 깨달음의 세 번째 단계인 불환자에서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대부분의 수행자는 불환과를 얻으면 흡족해할 것입니다. 불환자가 되는 정도면 수행 생활의 결과로 충분치 않습니까?

니밋따는 호흡의 끝에서 선정의 시작까지 연결해주는 수단입니다. 아자따삿뚜왕은 죽림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갈 때, 코끼리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코끼리로 가고,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신발을 신고 가고, 신발을 벗고 가야 하는 곳에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부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호흡 수행의 여정도 그와 같습니다. 호흡은 수행자를 니밋따까지 데려다주고, 니밋따는 수행자를 선정까지 데려다줍니다.

니밋따는 여러분을 선정, 즉 부처님의 마음이 머물렀던 곳으로 다가가게 해줍니다. 선정을 경험하고 나온 수행자의 마음은 선정을 경험하고 나온 부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음 상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수행의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해동의 사주혁명
"자연명리로 사주의 정체를 밝히다"
무료 공개 특강 :
18년 8월 23일, 30일(목) 14:00
자연명리는 자연생태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명리를 연구하면서 깨닫고 발견한 이론


◇ 자연명리 : 초급편 ◇ 사주의 함정
| 신지평 | 2018-06-22
저자 윤상흠 ('자연명리' 이론 창시자)
現)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現)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명리학 강의
現)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02) 929-4646, 010-8902-4640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번 출구 (사잇길 80미터)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② 사물 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착복무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 587-8419
사) 대 한 불 교 불 음 원
원장 원명 합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 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대행 스님

길을 가다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만 일어나진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여)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남편이 삼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요, 여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스님께 좀 도와 달라고 왔습니다.

큰스님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스님네들한테 관하는 도리를 배워 가세요. 관하는 도리는 아십니까?

질문자1(여) 잘 모릅니다.

큰스님 처음 오신 분이로군. 그러면 관하는 도리,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만 일어나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리를 저 스님네들한테 이따 물어서 알아 가지고 가세요.

질문자2(남) 오늘 네 가지를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것 외에는 별도의 수행 방법을 강조하시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선이 좋은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다 하는데, 과연 생활 중의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참선이라는 스님 말씀의 참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아이참, 그저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건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면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일상생활의 일거일동 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 전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내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앉아도 참선이요, 서도 참선이요, 누워도 참선이요, 또 일을 해도 참선이요, 행선 와선 입선 좌선 다 한데 합쳐서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걸 내 마음 속에서 한다, 그냥 들이고 내는 것이 한마음이다' 이런다면, 그냥 거기다가 놓고 돌아가면, 믿고 놓으면, 그냥 이것저것 따로 따로 챙길 게 없이 그대로 놓고 가면 그것이 참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놓는 반면에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지켜보는 게 바로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체험하는 그것이 참선입니다. 뭐, 별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내게 일일이 다가오는 거 그저 거기다 맡겨 놓고…, 즉 말하자면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차가 망가져도 운전수 탓이고 차가 받혀도 운전수 탓이지, 차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차 운전수 붙들고 야단이지. 하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러니깐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 나가는 거니까 운전수에다 모든 거를 한데 모아서, 그냥 모으고 안 모으고도 없어요. 거기 놓고 그냥 돌아가는 그것이, 그리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거기다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가도 아니 되고, 허허허.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가고 오는 것도 다 너만이 알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이끌어 가게 할 수 있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질문자2(남) 두 번째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행하라는 뜻으로 사료되옵니다마는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다 해도 막지 않고 부처가 간다 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큰스님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요, 가는 것 일부러 그냥 쫓아가서 잡고 이러기보다는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고 무조건, 하다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뭐든지, 하다못해 소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 도리를 납득을 못합니다.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즉 말하자면 지금 말했듯이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 된다. 그냥 놓고 가는데, 그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의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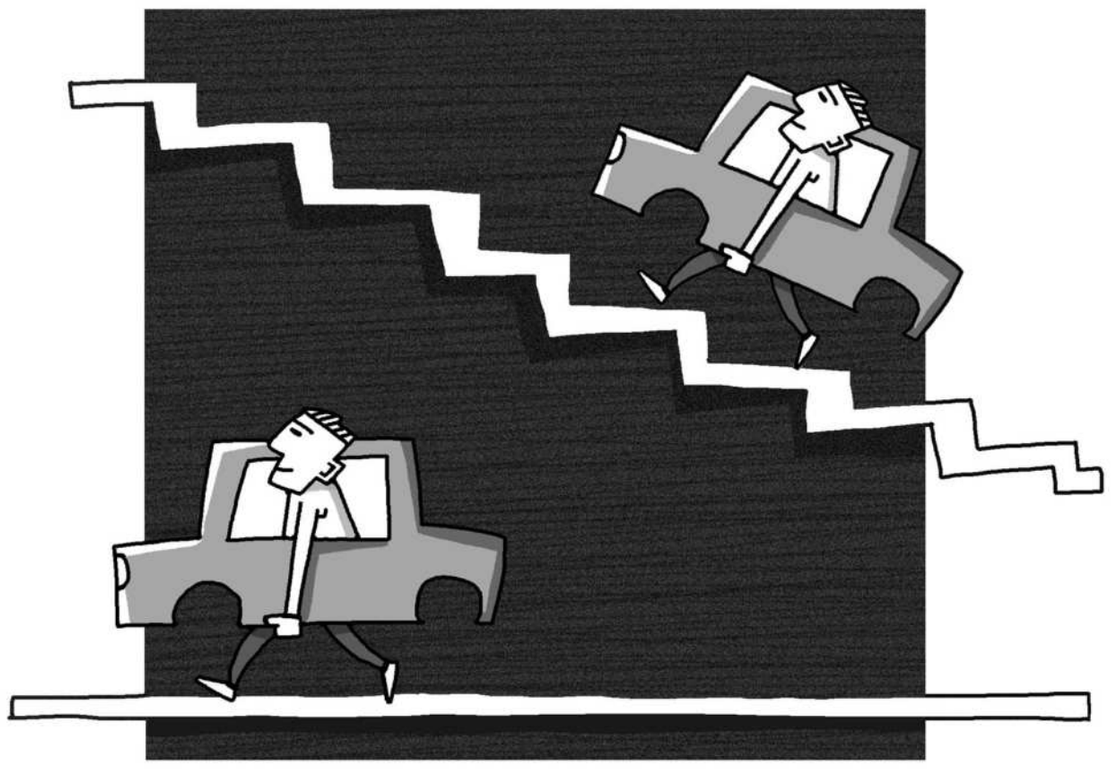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남)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게 맡긴다, 주인공을 관한다고 할 때에는 맡기는 자와 맡는 자, 관하는 자와 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주인공 당신'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 하고 자주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러게 누가 상대를 두고 해 달라고, '주인공, 해 주시오.' 하고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뚱이 네가 고장 났으면 네가 고쳐서 끌고 가라.'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아니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라.' 그러고 놓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네가 벌여 놓은 거니까 네가 수습해라.' 하고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그것이 마음 없는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모두를 둘로 보지 마세요. 이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해 달라고 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거는 벌써 잘못 들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이렇게 만든 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 몸뚱이 네가 끌고 가려면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놓을 수 있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냥 장난기처럼 아무렇게나 해 버리는 그런 거는 핀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말고 열심히들…. 어떠한 거든지 둘로 보지 마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 드렸습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광력을 찾고 이 모든 진화를 찾고 형상을 찾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만나서 헤어졌으면 또 딴 걸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 왔으니, 지금 생각을 한대도 어떠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라고 하고 어떠한 자식이 됐을 때 자식이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거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질문자2(남) 네 번째는 오조 홍인 대사께서 육조 스님께 의발을 전하신 뒤 길을 떠나라고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품을 회(懷)자가 든 고장에서는 머물고 모을 회(會) 같은 데는 감추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인 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큰스님의 뜻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거를 뜻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는 그건 자기가 가는 거지 누구가 대신 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음에 뿌리와 나뭇가지, 잎새, 열매가 모두 익어서 제대로 맛을 아는 자에게, 그 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행해 주고, 즉 행하고 거기 머무르고, 또 그냥 겉탕으로 이렇게 모일 때는 감추어라. 즉 자기가 행하지 말라 이 소립니다. 이게 "이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는,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에게는 머무르지만 이게 겉탕으로 모여서 흉이나 하고 그러는 자에게는, 겉탕으로 하는 자에게는 아예 말문을 열지 마라. 감추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그

☞ A18면으로 계속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삼나 효모 밥 죽 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죽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 죽 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놓고 그냥 돌아가는 그것이,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

☞ A17면에서 계속

렇게 해라. 그 자리가 바로 네 자리니라.” 이런 거거든. 말은 할 줄 몰라도 뜻은 알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러게 이 마음공부를 이끌어 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알고 보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죠. 세세생생에 끄달리고 돌아가면서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도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이 오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훌쩍 벗어난다면 견우와 직녀 속에서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질문자3(남) 작년 4월 울산 KBS 공개홀에서 스님 뵙고 그때 말씀 네 마디를 듣고 지금 한 마디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큰스님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질문자3(남) 한 마디요, 말씀 한 마디만 가지고….

큰스님 네.

질문자3(남)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이제 계속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와 가지고 울산 아들이라고 질문을 드릴 적에도 다 외우고 있고, 또 먼저 지난 4월 달에 와 가지고는 제가 질문하려니까 스님께서 박문수 어사 백지 얘기를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주지 스님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적에 불상인 부처가 탁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건너는데, 한길을 건너는데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뭔가.’ 하고 찾으려는데, 계속 찾으려는데 못 찾았습니다. 오늘 들어와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엄마가 저를 낳고 일찍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게 한 네 살쯤 되었습니다. 그래 한 네 살쯤 돼서 혼자 걸어 다니면서 노는데 새로 처녀가 시집을 와서 나를 키웁니다, 이제. 키우는데 노는 걸 보면 혼자면서 누가 꼭 둘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더랍니다. 가 보면 혼자 있는데 얘기는 둘이 한다 이겁니다. ‘아, 이게 뭔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이겁니다. 집안에서는 엄마 없이 혼자서 큰다고 맨날 “불쌍하다, 불쌍하다” 합니다. 그런 말을 흔히 하죠. 그런데 아, 이 도리를 오늘 스님한테 받아들지 못하였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딱 볼 적에는 전부가 나의 화신이요, 보살이라 미리미리 보여 주셨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맞습니까?

큰스님 예. 하하하.

질문자3(남) 어쨌든 간에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잊었는데 “불쌍해라. 불쌍해라.” 하는 게 그게 도로를 건널 적에 부처가 나타난 거하고 그때 “불쌍해라. 불쌍해라.” 한 그 소리가 “불상을 네가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까?

큰스님 허허. 그것도 아니에요.

질문자3(남) 그것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쭉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네 소원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가만히 연관시켜 보면 그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로 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불법을 늦게 만났더라도 이 길을 난 분명히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 정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 갑니다, 이제. (대중 웃음)

큰스님 이거 보세요. 앞의 거를 해결을 못하고, 저 먼 데 거를 해결을 하려면 안 되십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게 갈 거는 간다 하더라도 지금 댁에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뭘 찾으러 가십니까?

질문자3(남) 아뇨. 곧 다 됐습니다. 스님은 여기 앉아 계셔도요, 우리 집 형편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리고 그 마음에서 지금 그러한 도리를 아신다니깐 망정이지, 만약에 화(化)해서 자꾸자꾸,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됐다 이러듯이 그 마음속에서도, 이 주인공 속에서도 그저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에 자꾸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질문자3(남)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두 남매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모릅니다. 부아를 돋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내 생각을 했습니다. ‘요놈! 또 내 화신(化身)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돌리니까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데요.

큰스님 하하하. 예, 참 잘됐습니다.

질문자3(남) 오늘 밧데리 보충 멋들어지게 하고 갑니다.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3(남)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백지 한 장에 그림 한 장 그려 가지고 울산에서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림 그릴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가시는군요.

질문자4(남자 어린이) 큰스님, 한마음 내어 주세요.

큰스님 왜?

질문자4(남자 어린이) 주인공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큰스님 오, 좋았어. 그래. 한마음을 내 달라고 안 해도 네 마음으로 한마음을 내면은 한마음이 된단다.

질문자5(남) 저는 경남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의 안식구가 한두 달 전부터 원인 모르게 어지럽고 일어나지를 잘 못하고 이래서 울산, 부산으로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별 검사를 다 해도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선생님이 모르시는 걸 내가 어찌 압니까마는 하여튼 처음 오셨습니까?

질문자5(남) 예.

큰스님 그러면 오늘 관하는 것만 알고 가신다면, 여기 주지 스님한테 들어서 관하는 것만 알고 가신다면은 오늘 저녁부터라도 나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5(남) 예. 울산 지원에서 스님들이….

큰스님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이따가, 예.

저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저 답십리 그 집 남편이 교육감 노릇 할 때죠. 답곡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이. 거기를 들어가니까 별안간에 그냥 허우적허우적 어떤 사람이 오더니마는, 그때 뇌염이 한창 많이 걸릴 때인데 애가 뇌염이 걸렸는데 그냥 몸을 비틀고 그렇게…. 모두 병에 걸린 애들이 20명 된대요, 병원에. 그런데 자기 애도 그렇게 됐다던가 그랬는데, 그때는 이 관법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다고.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갔지. 그런데 3분이 안 돼서 몸이 깨어나서 밥을 먹었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법을 모두들 왜들 안 하십니까. 자기 자성신(自性神)은 외면하고 타신을 만날 믿고 목탁 두드리고 생각하고 해 달라고 하고 온통 야단법석들이니, 부처님이 사십구 년 설하고 가르쳐 주신 길은 어디 가서 찾죠?

질문자6(남) 저는 지금 자연과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자연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의문이 많이 생겼는데, 불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리를 얻는 방편이 세상에 있습니까?

큰스님 이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야. 어떠한 벌레도 생명이 있으니깐 불이야. 그래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운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법이야. 생활이 그냥 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이야. 너의 생명 근본, 영원한 근본, 근본이자 생활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생활을 벗어나서 불법이 있을 수가 있나? 모두가 불법인데.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 된다.
그냥 놓고 가는데, 그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질문자6(남) 그럼 다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문명을 받기 전에 불성(佛性) 그 자체가 있었다고 배웠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불성 자체로 보면 그것도 불성입니까? 애초에 불성 자체로 볼 때도요, 그것 자체에도 불성이 있는 겁니까? 애초에 있었던 불성에.

큰스님 불성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도 불성이 없는 게 없어. 우리가 이 세상 나기 전 암흑세계에서도 이 바람과 흙과 물과 이렇게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야.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인연이 된 거야. 삼합(三合)이 한데 합쳐지자 거기서 온기가 생기니까 불도 거기서 그냥 생긴 거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생긴 거지. 한데 합쳐서 생명이 생긴 거야,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생기니까 광력을 얻은 거야. 그래서 광력이 얻어지니까 그 생산이 된 거지. 미생물에서부터 생산이 돼 가지고 그 수없이 겪어 왔잖아. 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공룡 시대 무슨 시대 하고 겪어 오면서 발전이 된 거지. 그러다 인간까지 발전이 된 거지. 그래서 인간은 맨 나중에 나왔다 하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불성 없는 것은 없어. 생명이 있다 하면은 다 불성이 있는 거지.

질문자6(남) 알았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이런 것도, (물컵을 가리키시고) 컵도 이것이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이 되고 인연이 돼서 이것도 살아 있는 거지. 컵이라는 거를 봐 주고 써 주는 인연이 있고, 물을 담고 이렇게 써 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는 거죠.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거예요. 움죽거리고 있다고요.

질문자7(여) 오늘 스님을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이러는데 스님,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큰스님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물론 이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허황돼지고 그렇게 되지만,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맡겨놔 버리고 그대로 ‘네 몸뚱이, 네가 형성시킨 네 몸뚱이 네가 끌고 다니는 건데, 건강하게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가는 길이지 뭐, 공부하는 데 무슨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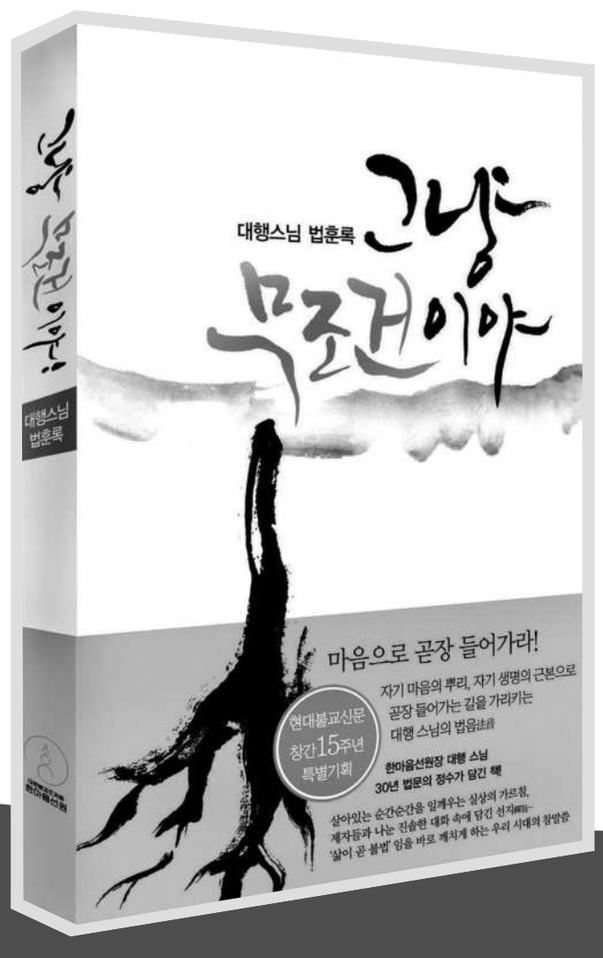
질문자7(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큰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재료로 알고,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어떠한 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든 거를 해 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지 않게끔 벌어질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체험하고 나가다 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 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여러분, 모두 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살아나가는 데 어떠한 고통, 어떠한 병고, 어떠한 재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모두 커버해 나가면서, 내 진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위 법문은 1992년 8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놓고 그냥 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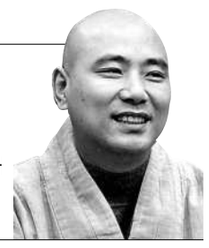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장기기증은 자비입니다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나는 장기기증을 희망합니다' 한 소방관 가슴에 새긴 타투
대중들 감동…기증 희망 늘어

자리이타 실천하는 대승불교는
장기기증을 보시바라밀로 해석

오계 중 첫째, 생명존중사상 연결
수계할 때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심전도 타투' 의미담아 연비하자

최근 어느 소방관의 가슴에 새겨진 문구가 인터넷 포털에서 화제다. 한 남성의 가슴에 새겨진 심전도 마크와 '한국 소방관', '나는 장기/조직 기증을 희망합니다' 라는 문구가 또렷한 사진. 과연 누가 이런 타투를 새긴 걸까? 타투의 주인공은 이미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마친 현직 소방관이고 그는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소방관' 이라는 직업 때문에 언제 어떤 위험한 일을 겪을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장기 기증자라는 것을 가능한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가슴에 이런 타투를 남긴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연이 알려진 이후 놀랍게도 장기 기증 서약자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하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장기이식 비용을 장기 이식 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장기 기증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는 뉴스도 눈에 띈다.

지금의 장기기증법은 장기 이식 · 적출에 드는 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장기일부 보험사가 장기 이식 관련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기기증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앞으로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장기기증 과정에 지출되는 각종 행정 처리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장기 이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는 이때 불교에서는 장기 기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기의 성불만이 아니라 타인의 성불도 담아내는 자리이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대승불교에서는 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기기증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기증하는 나눔의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범부들이 유일하게 자신의 것으로 집착하는 육신의 일부를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금강경〉에 나오는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 의 가장 바람직한 예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런 불교 정신을 실천하는 '생명나눔운동본부' 에서는 '장기 이식 건수가 작년에 4372건으로 늘었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가 2000년 5343명에서 작년에는 3만4187명으로 증가한 사실' 에 주목하고 생명을 나누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로 부터 자발적인 기증희망등록을 받고 있는데, 뇌사 · 사후에 본인이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기증희망등록은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태국에서는 '싹얀' 이란 전통적인 문신을 행하고 있다. '싹(Sak)' 은 두드림 또는 문신을 의미하고 '얀(Yant)' 는 신성한 기하학적 디자인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얀트라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문신에는 불법승 삼보와 관련된 문구들이 등장하고 오계를 먼저 받은 후에 몸에 새길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계를 받을 때 팔에 연비를 하고 있다. 오계를 지킬 것을 삼보 전에 약속하면서 그 맹세를 팔뚝에 새기는 것이다. 오계의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존중 사상과 연결이 돼 있다.

앞으로는 수계를 받을 때 장기 기증 서약을 함께 하고 연비를 할 때 심전도를 마음의 상징으로 새기면 어떨까. 내 심장이 그치면 장기를 통해 타인의 심장을 뛰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새기는 것이다. 소방관이 가슴에 새긴 타투의 의미를 본받아 모든 불자들이 장기기증 서약과 함께 연비하기를 기대해 본다.



기자칼럼

불광사 노동조합 창립에 부쳐

노덕현 취재부 기자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 지하 선운당에서는 불교계 첫 사찰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불광사 노동조합이 그 것이다.

불광사는 현재 창건주 권한이 있는 前회주 지홍스님(조계종 포교원장)과 일부 신도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사찰이다.

이날 노동조합 결성을 알린 재가종무원들은 신도들의 사찰 점거와 감시, 심지어 폭행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개별 사유를 떠나 불광사 종무원 노조의 탄생은 조계종 사찰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었단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찰에서 재가종무원은 보통 출가자로 구성되는 임기제의 교역직 종무원과 달리 장기적으로 종무행정을 이끌 행정력의 핵심이다. 장기적인 사찰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전문가로서 이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히 일반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급여를 차치하고서라도 고용안정 부분에서 그렇다. 사찰에서는 그동안 인사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주지 스님 등 인사권을 지닌 사용자가 해고와 인사이동 등을 지시하면 노동자인 대부분의 재가종무원은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갑과 을로 평가하자면 이른바 슈퍼갑과 슈퍼을의 관계였다.

이런 역학구도에서 일부 공찰은 주지 스님 교체마다 종무원들이 대거 바뀌기도 했고, 종무원들이 인사권을 지닌 스님의 개인용무를 도맡아 하기도 했다.

신도와의 관계 또한 그렇다. 사찰에서 재가종무원들은 신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다. 여기에 작은 사찰의 경우 봉사자들이 종무행정에 참여해 신도와 종무원의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다. 이런 관계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주장을 펴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이나 근무환경 협의 등도 사실상 비정규직 수준의 협상력을 지닐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재가종무원들도 직장인이며 생활인이다. '신분보장' '고용안정' 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사이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사회법에서도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조계종에도 종무원법이 있어 종법이 정하는 징계사유 외에는 65세까지로 재가종무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때로는 사찰에서 재가종무원의 부당한 처우 개선 요구는 신심의 부족으로 치부되곤 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앞서 설명한 이유로 요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단결권 행사까지 제약이 따른다. 여기에 사찰 종무원으로서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 또한 어렵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교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에 이어 새 총무원장 선출까지 불교계 안팎에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마련부터 각종 사업 집행까지 도맡아 하는 이들이 종무원들이다.

사찰에서 주지 교체와 안팎의 갈등에서도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종무원들이다. 종무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종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社說

'불신임' 정국, 빠른 안정 급선무

2018년 8월 16일. 이날은 한국불교 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계종 역사상 첫 불신임. 정확하게는 8월 22일 열리는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은 총무원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어쩌면 이 같은 설정 스님의 '불신임 정국' 은 예고된 것일지 모른다. 설정 스님은 취임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과정에 불거진 자신의 의혹에 대해 밝힐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면서도 명확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PD수첩에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설조 스님의 단식 등이 이뤄지고 나서야 설정 스님은 "마음을 비웠다.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자신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가 8월 14일이 돼서야 종단 개혁을 위해 사퇴를 미루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명확한 해명 없이 오로지 결백만을 주장하고, 사퇴와 번복을 오간 설정 스님의 갈지(之)자 행보는 결국 종단 사부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피로를 안겼다. 이는 첫 총무원장 불신임 가결이라는 결과로 귀결됐다.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위상은 현재 바닥을 친 상황이다. 재가자가 승가를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승가는 재가자들을 백안시 한다. 국민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종단 안정이 필요하다. 이제 승가와 재가 모두 종단 화합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은 파국을 몰고 올 뿐이다.

장애인 불자 시집 후원에 관심을

장애인불자들의 신행모임인 '보리수아래' 가 지난해 미얀마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시집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를 발간한데 이어 올해 베트남장애인들과 공동시집 발간에 나선다. 시집명은 〈시로 엮은 내 사랑을 받아주오〉다. 사찰의 낮은 접근성과 색안경을 끼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원활한 신행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장애불자들이 걸림돌을 극복하고, 해외 장애불자들과 문학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박수 받아 마땅하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공동시집 제작에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스토리펀딩을 통한 후원금 모연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최근 스토리펀딩 사이트에 '아시아장애인들의 공동시집 제작' 이란 제목으로 사연을 등록했다. 시집은 현재 번역 진행 중이며, 10인의 시 총 40편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수록될 예정이다. 후원자들에게는 시집을 비롯해 보리수아래 서정음반, 각종 간행물들이 배송된다.

지금껏 한국불교는 사홍서원의 제1서원인 '중생무변서원도' 를 외쳐왔지만, 정작 이 서원은 장애불자들에게 잘 닿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2001년 한국갤럽이 발표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장애인에 대한 의식조사' 에서도 불자는 7.2%에 불과해 개신교(61.5%), 가톨릭(12.6%)보다 한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불교계가 장애불자들을 무관심으로 대해왔다는 뜻이다.

이제라도 시선을 조금만 옮겨보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 손길, 눈길 닿는 그곳에 고군분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장애인불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귄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광명선원

www.hanmaum.org

칠석 백중

항상

나 한 테 감 추 어 숨 어 있 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켜서 밝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마음과
내 조상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불을 켜는 것입니다.

· 대행선사법어

칠월칠석 법회

◆ 8월 17일 음7/7 금 오전 10시 30분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부모,가족과 선근인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밝히며 축원을 올리는 날입니다.

(축원문 접수 – 가족, 직장, 개인)

백중 합동천도재

◆ 8월 25일 음7/15 토 오전 10시 30분

점등식 도량돌이

◆ 8월 25일 음7/15 토 저녁 7시 예불 후

조상님 은혜에 감사하며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날입니다.

(연가등 접수 – 조상님, 무명영가)

▶ 찾아오시는 길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 광명선원 (光明禪院)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주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번지


젠마운틴 사원에서 오관게를 하는 미국 불자들.

서구화된 명상 아닌 '진짜 禪' 필요하다

특집기획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① 미국 불교명상의 현재는?

② 美 명상센터 현장 – 젠마운틴사원

③ 美 명상센터 현장 – 블루클리프사원

④ 美 명상센터 현장 – 개리슨인스티튜트

⑤ 美 명상센터 현장 – 레이크샤린

⑥ 세계 명상 현주소와 禪명상 방향

⑦ 걸음마 뗀 한국 禪명상 과제는?

⑧ 불교명상 'GURU'에게 듣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은주가 36°C를 가리키던 7월 14일, 선풍기 앞에 죽은 듯 있어도 힘겨운 무시무시한 폭염이 이어지던 한여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날부터 7월 21일까지 미국 뉴욕과 LA에서 진행된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단장 박희승)의 '미국 명상센터 답사'에 동행하기 위해서였다.

불교 기자로서 최근 한국에까지 이른바 '역수입' 되고 있는 서구사회의 불교명상 현황을 살펴볼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불교명상의 미래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약 5일간의 답사와 한국불교명상의 방향을 8차에 걸쳐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불교수행 현황

작금의 시대는 이른바 '명상시대'로까지 불리고 불교계는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명상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웰빙 바람을 타고 요가와 참선 등 몸과 정신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명상산업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중화, 상품화로 인한 르네상스를 맞이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불과 1년 사이 요가나 명상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상은 소수의 동호회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전통수행인 '참선', '선수행', '좌선' 등의 용어 대신 '명상' '불교명상' '참선명상'이라는 용어가 더 유행하고 있다. 불교의 수행에 '명상'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으면 뒤처져 보일까 대부분의 수행에 '명상'이란 단어를 일부러라도 넣는 추세다.

전국 주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의 주요 항목을 보면 '차 명상' '자비 명상' '집중 명상' '걷기 명상' 등 공식화 된지 오래다.

하지만 최근의 명상은 불교에서 벗어나려는 추세가 보인다. 아직까지는 불교와 연관 짓는 이들이 많지만 이 같은 추세는 언제 변할지 모른다.


젠마운틴사원에서 명상체험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구글 검색 빈도에서 2014년부터 명상이 불교를 추월했다. 한국에서도 그 격차는 줄고 있다. 명상에 관한 연관검색어도 불교적인 내용이 점점사라지고 있어 명상의 열풍이 불교의 열풍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한 서구화된 불교명상이 오히려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느낀 불교명상의 가능성

이번 답사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불교명상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선원수좌복지회 사무총장 평정 스님을 비롯해 국내 최고 지관으로 꼽히는 송왕의 선생, 세계명상마을 감독관으로 활동할 송준 선생 등 불자들이 동행해 든든하기 그지없었다. 이와 함께 실무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권기섭 문경시 부시장과 문경시의 명상마을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예수상이 부감된 명상홀에서 대화를 나누는 스님들.

답사는 크게 뉴욕과 LA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뉴욕 젠마운틴 사원, 블루클리프 사원, 개리슨 인스티튜트, 그리고 LA 레이크샤린(호수명상센터)이었다. 각기 일본 조동종계, 베트남 임제종계, 명상, 요가 등이 주력 수행인 색채를 지닌 곳이었다.

사실 미국에서 명상의 대표적인 곳은 스즈키 순류 스님의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를 비롯해 실리콘밸리의 명상관련 기업과 명상센터가 산재해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꼽힌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한 뉴욕지역 또한 미국 명상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경우 상좌부 불교 스님으로 뉴욕에서 비영리 명상수행단체 'Buddhist Insights'를 이끄는 반테 수다소 스님을 초청해 매주 첫째 주 수요일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뉴욕의 공립학교에서도 방과 후 학습으로 명상 강좌가 인기다. 또 최근에는 한 명상단체가 뉴욕에서 버스를 개조한 명상스튜디오를 운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지에서 느낀 열기도 상당했다. 번잡한 뉴욕 시내에서 자동차로 2~5시간씩 달려 통신망조차 없는 국립공원 속으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곳에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도착한 명상센터마다 사람들이 20~40명씩 수행 중이었다.

숙식을 하며 수행하는 이들부터 퇴근 후 수행하는 이들, 인근 마을에 거주하며 주말마다 오는 이들 등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들이 '명상수행'이라는 방법에서 공통분모를 지닌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유와 규율 사이의 조화

인천공항에서 14시간의 비행 끝에 첫 날밤을 보내고 처음으로 답사를 시작한 곳은 뉴욕의 젠마운틴사원(Zen Mountain Monastery)이었다.

뉴욕 캣츠빌 국립공원 내 자리한 젠마운틴 사원은 일본 조동종 계열의 존다이도 루리 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후학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답사단이 방문한 시간은 점심공양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차분히 영어로 오관게(五觀偈)를 하는 모습은 이색적이었다.

젠마운틴사원을 세운 루리 선사는 수행을 8단계로 나누어 지도했다. 1:1면담, 예불, 윤리 정신교육, 운력, 신체적인 연습, 예술적인 연습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 등이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마음수행을 강조한다. 이런 가풍에서일까. 오관게를 한 대중들은 드넓은 풀밭 위에서 삼삼오오 채식 파스타를 즐겼다.

조금 멀리서 사원을 보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인홀 주벽면에 큰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상이 부감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가톨릭 수도원 건물을 인수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선수행으로 모여 있었다. 이들에게 불교, 그리고 선 수행은 그 자체로 '자유'임을 느낄 수 있었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점심공양 시간 예수상 밑에서 삼삼오오 식사를 하며 수행담을 털어놓는 그들의 모습이 이색적이기만 했다.

답사단의 방문을 맞이하고 사원을 소개한 것은 루리 선사의 제자인 고칸 스님이었다.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 고칸 스님은 "일본 조동종의 정통 수행을 잇고 있다. 자연 속에서의 수행과 함께 참선 중심의 수행을 병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미국의 명상인구는 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명상의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칸 스님은 "미국의 다른 명상센터와 젠마운틴센터의 다른 점은 전문 수행자인 스님이 지도를 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간화선 또한 그 원류를 지켜온 스님들이 있기에 일반인들을 전문적인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설명에서 젠마운틴 사원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규율을 지키는 곳임을 알수 있었다. 특히 이성문제에 대해 수행 입문하는 이는 입문 후 금욕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한가로운 블루클리프 사원

사원 내에서는 검은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선센터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에서 속속 생겨나는 명상마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다양한 명상수행의 보고(寶庫)

첫날 오후에 두 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뉴욕의 블루클리프 사원(Blue Cliff Monastery)서는 생활과 밀접한 수행가풍을 느낄 수 있었다. 해먹에 몸을 누이고 책을 읽는 스님부터, 조용히 마당을 쓰는 수행자,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이들까지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2007년 프랑스 플럼 빌리지의 스님들과 제자들에 의해 문을 연 블루클리프센터는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다. 많은 수행자들이 마음챙김 수행(mindfulness)을 하는 곳으로 종이 울리면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순간의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을 한다.

B2면에 계속


블루클리프 사원 정원에 조성된 수행하는 모습의 불상들

禪

韓명상 세계화 원동력은 '간화선' … 현대화 집중해야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B1면에서 계속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일과생활을 하던 중 잠시 수행을 하고, 또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수행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넷째날 방문한 뉴욕 개리슨 인스티튜트(Garrison Institute)에서는 열린 플랫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스테인드글라스에 새겨진 성화를 비롯해 어느 수도원과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이들은 수행을 하고 있었다. 성당과 같은 곳의 중앙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또 기독교의 수행부터 티벳 불교 수행 등 다양한 수행을 하는 이들이 함께 토론도 하고 함께 수행하는 모습에서 다문화와 다종교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미래가 그려졌다.

달라이라마의 인스티튜트 방문 이후 티벳불교의 영향으로 불교명상이 주가 됐다는 안내자의 설명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필요성 또한 느껴졌다.

LA 호숫가에 포행을 하며 명상을 하게 만든 레이크샤린 또한 자연스럽게 사색에 잠기게 하는 곳이었다. 이들 모든 공간에서 식사시간과 수행복, 대화 방식을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불교 수행하면 생각하는 좌선 위주의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개리슨 인스티튜트


젠마운틴 사원



레이크샤린

다문화 · 다인종 사회에 특화
선수행 현대화 실마리 제공
자유로움과 규율의 조화 필요
음식 · 요가 등 생활화 특색

한국명상 범람, 중심 있어야
근간 정체성 '선'으로 확립
"신행서 수행으로, 대중화를"

미국의 대표적 명상센터의 특징

우리는 수행을 주로 수행자, 특히 스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란 생각이 있다면 미국의 명상센터는 일반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느끼고, 사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 사회에서 요가 위주의 호흡과 명상을 통한 영성 수행이 먼저 전개된 이유도 이런 차이에 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인도 아유로베다에 바탕을 둔 건강식과 음식, 춤 등 새로운 미국식 요가가 유행하고 있다. 수행의 생활화, 삶을 바꾸는 수행이 곧 미국에서의 명상 수행인 것이다.

젠 마 운 틴 사 원 (Zen Mountain Monastery)에서 루리 선사가 초기 미국사회에 수행법을 소개할 때도 꽃꽂이나 그림그리기 등을 결합한 수행법을 선보였다. 생활 속에서 쉽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한 접근을 한 것이다. 블루클리프 선원 또한 전화를 3번 울리는 동안 받지 않고 마음챙김을 하는 등 구체적인 생활 속 수행법을 알려주는 곳이었다.

개리슨 인스티튜트의 경우에는 소모임이 활성화 돼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답사에서 방문지로 당초 예정된 오메가 인스티튜트(Omega Institute), 원달마센터(Won Dharma Center) 등에서는 심리치료적인 프로그램,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등 생활 속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행법이 대중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현대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또 기존 명상수행이 개인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와 사회 문제 해결 등 참여형태로 나타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

불교명상의 정체성, 선수행서 찾아야

최근 한국불교계는 오대산자연명상마을을 개관하고, 문경세계명상마을 불사에 들어갔다. 삼성과 대웅제약 등 기업단위의 명상마을 구축에 이어 불교계가 직접적인 명상센터, 혹은 마을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외형적 불사와 함께 내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란 화두에서 불교계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답은 한국불교의 대표수행법인 간화선의 대중화, 현대화에 있지 않을까.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인 혜거스님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명상붐이 크게 일어났듯 우리나라도 현재 명상붐이 크게 일고 있다. 이는 종교가 기존 교리에 바탕을 둔 신앙과 신행에서 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수행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교명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고 보다 깊이 있는 불교명상을 대중들에게 알려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세계명상마을사업단 단장은 "명상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간화선이라는 불교의 전통수행법이 있는 상황에서 불교명상의 정체성을 잡고 현대화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 무더위 속에 한줄기 선선(禪禪)한 바람이 불어왔다. 한국불교 수행의 변화 방향에 대한 답답함을 날리는 바람이었다. 이 바람처럼 한국 선불교의 새장이 여는,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바람이 불길 바란다.

2018년 백중기간 5% 특별할인(8월25일까지)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회계 감사보고 결과
지급 여력 비율(100% 이상) ·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BTN 불국토상조는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입니다



상담 및 가입문의 1577-7675

불교의 전통 그대로
- 입관시 스님의 시다림
- 제단에 불교식장엄번 설치
- 불경수의 제공
- 지장보살상 위패 제공

불교TV의 안전성으로
- 불교TV자회사 (주)불국토에서 운영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만기 1년 후 100% 환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01 제68호)
- 선불식 할부금 예치기관(국민은행)

거품없는 가격으로
- 매월 3만3천원의 합리적 가격
- 물가 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형 가입시 할인혜택
- 묘지/납골당 저렴하게 이용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 전화 한통화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원스톱서비스
- 전문장례지도사 24시간 대기
- 회원권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단 부부형 제외)
- 전국 어디에서도 서비스 가능(단 도서지역 제외)

BTN 불국토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10,286,288,045원, 상조 관련 자산 15,736,255,734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68호

차안에서 피안의 세계로 가다

〈此岸〉 〈彼岸〉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⑮ 선승(禪僧)의 다비(화장)와 유품 경매

선승의 다비(茶毘)

당송시대에는 한 총림에 적어도 100여 명 이상이 함께 수행했다. 그 가운데는 이승과 작별을 고(告)하는 납자도 종종 있었다. 그를 망승(亡僧)이라고 한다. 망승의 마지막 절차인 장송 장면은 다비(茶毘) 곧 화장(火葬)이다. 다비는 공(空)의 이치, 제행무상의 이치를 100% 보여 주는 인생 드라마다.

선종 사원에는 정식 다비장(茶毘場)이 갖추어져 있다. 정식 화장(火葬)은 장소가 넓어야 한다. 좁으면 불꽃이 튀어 산불이 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비 순서는 먼저 참나무 장작을 2미터 가량 높이 쌓은 다음 그 위에 망승의 시신(屍身)이 들어 있는 감(龕, 棺)을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또 장작을 쌓아 올리고 점화한다. 이것이 정식 다비(화장)이다. 요즘은 정식 다비를 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없으므로 TV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대부분 약식 다비를 한다. 약식(略式) 다비는 땅을 약 50센티 가량 파서 고랑을 만들고 그 위에 장작을 1미터 정도 쌓고 관을 올려놓고 또 장작을 올린다. 그런 다음 물에 젖은 볏짚으로 여러 겹 영을 두른 후 다비를 하면 불꽃은 튀지 않고 하얀 연기만 피어오른다.

선승의 장례와 장송의식은 규율과 행사 담당인 유나(維那)가 주관, 집전한다. 유나의 지시에 따라 망승의 관(棺)을 다비장으로 옮겨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데, 그것을 '하화(下火)' 또는 '병거(秉炬, 횃불을 잡다)'라고 한다. 하화(下火)나 병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지 외의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주지가 횃불을 잡으면 유나는 감(龕, 관)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염송한다.

"오늘은 신원적(新圓寂) ○○상좌가 인연에 따라 순적(順寂, 입적에 순함)하였나이다. 이에 법에 의거하여 다비하나이다. 백년 동안 불법을 홍도(弘道)한 몸을 화장하나이다. 한결같이 곧장 열반(涅槃)으로 가사이다. 존귀한 대중들의 법력에 의거하여 각령(覺靈, 영가)의 열반길을 자조(資助, 돕다)하고자 하나이다. 나무서방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열 번 하고 마친다. (〈칙수백장청규〉 7권 '대중' 편. 維那向龕念誦云. 是日則有新圓寂某甲上座, 旣隨緣而順寂. 乃依法以茶毘. 焚百年弘道之身, 如一路涅槃之徑. 仰憑尊衆資助覺靈. 南無西方極樂世界 大慈大悲 阿彌陀佛. 十聲罷)"(대정장 48권, p.1148c).

하화(下火, 點火) 후에 다비가 완전히 마무리되자면 하룻밤이 지나야 한다. 이때 납자들은 여러 명이 함께 다비장을 지키고 앉아서 영가가 가는 길을 돕는다. 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납자들이 유골을 수습하여 대중들의 공용탑인 보동탑(普同塔)에 안치한다. 주지(방장)나 고승의 경우는 다비 후 별도로 사리탑을 조성하여 그 속에 안치한다. 이것으로써 다비 절차는 끝난다.

망승의 소지품 경매—창의(唱衣)

망승(亡僧)의 가사, 발우 등 유품 일체는 다비 다음 날 대중들에게 경매(競賣)한다. 이것을 '옷값을 부르다'는 뜻에서 '창의(唱衣)'라고 한다. 일반 승려뿐만이 아니라 주지(방장) 등 고승의 유품도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매한다. 망승의 유품을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사중(寺中)에 귀속시키지 않고 굳이 경매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6권 '망승(亡僧)' 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망승의 의물(衣物)을 창의(唱衣, 경매)하는 것은 이는 이른바 간심(慳心, 慳貪心)을 파(破)하고, 망승과 인연을 맺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로종색, 〈선원청규〉 6권 '亡僧' 편. 凡唱亡僧衣物, 此謂對破慳心, 及與亡僧結緣.)" (〈신찬속장경〉 63권, p.541b).

망승의 유품(가사 · 발우 등 일체)을 다비 직후에 곧바로 경매하는 이유가 대중들로 하여금 간탐심(慳心 · 慳貪心)을 제거하게 하고, 경매 물건을 통하여 망승과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즉 살아 생전에 물건에 탐착해 봤자 죽으면 다 경매되어 버리므로 탐착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경매를 지켜보고 있는 생자(生者)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창의(唱衣, 경매)는 주로 점심 공양 후에 하는데, 주관자는 유나(維那)이다. 유나는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망승의 유품에 대하여 기본 값, 즉 시초가를 책정한다. 이것을 고의(估衣) · 고직(估直) · 고가(估價)라고 한다. 고의(估衣)는 주지 · 수좌 · 감원 · 유나 등이 참여하여 책정한다. 고의는 절대로 처음부터 값을 높게 정하지 않는다. 경매를 하는 의도가 금전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탐착심을 제거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매 장소는 승당 앞이나 법당 안에서 한다. 경매 준비가 완료되면 유나는 종두(鐘頭)로 하여금 종과 북을 쳐서 대중들을 모이게 한다. 일반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고 스님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 여부는 자유이다. 그런데 의외로 경매에 참여하는 납자들이 많았다. 또 경매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인지 적지 않은 대중이 모였음을 알 수 있다. 대중들이 다 모이면 유나는 인경(印磬, 경쇠의 일종)을 한 번 치고 나서 게송을 읊는다.

"뜬 구름 흩어져서 그림자마저 사라졌네. 남은 촛불 다하여 그 빛은 저절로 소멸했네. 지금 여기에 고창(估唱, 경매)하나니 그것은 일체가 무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네. 우러러 대중을 의거하여 ○○상좌를 위하여 받드나니, 각영(覺靈, 영가)은 이것을 바탕으로 정토에 왕생하소서. 염(念)하나이다. 청정법신비로자나불" (〈칙수백장청규〉 7권 '대중' 편. "浮雲散而影不留, 殘燭盡而光自滅. 今玆估唱用表無常, 仰憑大衆奉為某甲上座, 資助覺靈, 往生淨土. 念. 清淨法身毘盧遮那佛.")(〈대정장〉 48권, p.1149a).



망승의 마지막 절차인 장송 장면은 다비(茶毘) 곧 화장(火葬)이다.

다비 후 가사 등 유품 대중경매
'물욕에 탐착하지 말 것' 의미

여기서도 유나는 '고창(估唱, 경매)하는 것은 일체가 무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유나는 또 한 번 인경을 친 다음 창의(唱衣, 경매) 방법에 대하여 고지(告知)한다.

"이 창의(唱衣)의 법은 오래 전부터 상규(常規)로서 이어온 것입니다. 물건이 새것인지, 오래된 것인지, 또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창의가 결정되어 인경을 친 다음에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아룁니다."(〈칙수백장청규〉 7권 대중 편. "夫唱衣之法, 蓋稟常規. 新舊短長自宜照顧. 磬聲斷後不許翻悔. 謹白")(대정장 48권, p.1149a).

낙찰은 최고가를 쓴 사람에게

경매는 최고가를 써 낸 사람에게 낙찰시킨다. 그런데 한번 낙찰이 결정되면 절대 번복해서는 안 된다.

유나는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하여 낱낱이 번호를 매겨서 대중 앞에 나열한다. 물건 번호는 천자문(千字文) 순서를 따른다.(즉 天-地-玄-黃-宇-宙-洪-黃 순서) 예컨대 첫 물건의 경우는 '천자일호(天字一號)'이고, 다음 물건은 '지자이호(地字二號)', 세 번째 물건은 '현자삼호(玄字三號)'라고 써 붙인다. 이렇게 하여 물건이 20가지라면 '왕자 이십호(往字 二十號)'까지 나간다. 번호를 매기는 것은 경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천자문에다가 숫자를 합하여 빈틈없도록 했다.

이어 유나는 행자로 하여금 경매할 물건을 들어서 대중들에게 보이게 한다. 경매하는 물건이 새것이면 '신(新)'이라 하고, 헌것이면 '구(舊)', 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것이면 '파(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천자일호(天字一號) ○○물건, 값 ○○요"라고 부르면(唱), 유나실의 행자는 다시 큰 소리로 대중들을 향하여 복창한다. 낙찰을 받고자 하는 이는 나무 판에 자기 법명을 쓴 다음 "청수(請受, 매수)요"라고 써서 나무 판을 올린다. 더 높은 가격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나는 "천자일호(天字一號)의 ○○ 물건은 값 ○○에 ○○상좌 청수(請受, 매수)요. (혹은 打與합니다)"라고 말하면 낙찰이 결정된 것이다.

낙찰이 확정되면 유나는 전표를 끊어서 낙찰받은 스님에게 준다. 지객은 그 스님의 이름과 물건, 값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행자는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서 전표와 교환한다. 낙찰은 번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경매 과정에서 좋은 물건의 경우 과열되기도 하다. 응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낙찰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너무 높아질 경우 유나는 대중들에게 "다시 모름지기 자세히 살피시오. 나중에 후회한들 번복하기 어렵습니다(維那卽云. 更須子細, 後悔難追)."라고 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그런데도 낙찰이 과열되면 그 물건을 유찰시켜 버리는데, 이것을 '쌍파(雙破)'라고 한다. 양쪽 모두 낙찰을 파(破)해 버린다는 뜻이다. 유찰된 물건은 재경매를 한다.

경매에는 특혜가 없다. 청규에는 설사 주지나 수좌 등 상위직 소임자라 해도 망승의 유물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매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승이 일반 승려가 아닌 6지사(知事)나 6두수 등 총림의 요직을 역임한 선승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물도 꽤 많고 값이 나가는 물건도 있어서 경매 수입도 높았다.

창의(唱衣)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을 경우에는 영가 앞에서 독경한 스님들과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 그리고 창의 주관자 등에게 골고루 나누어 보시한다. 그러고도 남는 것은 사중(寺中) 수입으로 계정(計定)한다. 경매가 끝나면 다음 날(열반 3일째)에는 바로 경매와 관련된 수지(收支) 명세서를 방(榜)에 붙여 공개하는데, 그것을 '판장식(板帳式)'이라고 한다. 단 매수자의 이름은 쓰지 않는다.

총림에서 망승의 물건을 경매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경매 방법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선종사원에서 시작한 것인지, 당시 세속에도 이런 경매방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 기록되어 있는 장의법(葬儀法)은 당대(唐代)에서 북송 때까지의 장의법이라고 할 수 있고, 〈칙수백장청규〉에 기록되어 있는 장의법은 남송 중기에서 원대까지의 장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망승의 유물 경매과정에서 과열현상을 빗기도 했는데 그에 대하여 〈칙수백장청규〉 7권 '대중'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휘기(增輝記)의 내용을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다.

"불교제도(佛制)에 망승의 옷을 나누는 뜻은 지금 남아 있는 이들로 하여금 저 망승의 물건이 여러 대중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사유(思惟, 제행무상)하게 하기 위함이다. 망자(亡者)의 물건이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그 물건이 나에게 돌아와도 똑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탐구(貪求, 탐욕)심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탐심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창의할 때 값을 다투어 시끄럽게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심한 것이다." (〈칙수백장청규〉 7권 대중 편. "增輝記云. 佛制分衣意, 令在者, 見其亡物分與衆僧, 作是思惟. 彼旣如斯, 我還若此. 因其對治息貪求故. 今不省察, 翻於唱衣時爭價喧呼, 愚之甚也")(〈대정장〉 48권, p.1149a).

"창의(唱衣, 경매)할 때 시끄럽게 값을 다툰다. 어리석음도 심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망승의 물건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도 종종 일어났던 것 같다. 세속인들이 경매에서 서로 다투는 것은 '생'을 위한 것이므로 굳이 '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선원의 수행자들이 경매 물건을 놓고 다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본질적으로는 부처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한 부처이기 때문이 아닐까?

원대(元代)에는 창의(경매) 과정에서 오는 문제점, 즉 과열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염법(鬮拈法)을 채택했다. 구염법이란 '제비뽑기' 방법인데, 천자문 순서대로 전표를 두 장씩 만들어서 한 장은 응찰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 장은 통 속에 넣고 모두 섞는다. 그런 다음 통 속에 있는 전표를 한 장 뽑는다. 해당 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낙찰에 응할지 여부는 응찰자의 자유였다. 낙찰받기 싫으면 응찰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다시 추첨한다. 구염법을 도입한 이후에는 잡음이 적었다고 한다.

〈민족사 대표〉





이번주 신간은… 〈선연스님의 명상의 숲〉 선연스님 지음/도반 펴냄/1만 5천원

'선연스님 명상의 숲'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씩을 판에 인쇄해 어디든 걸어 볼 수 있도록 스님이 인쇄판을 만들어 걸기 시작한 것에서 시작 되었다. 이제는 '명상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수만 장이 걸렸다. 이런 전국의 '선연스님 명상의 숲' 글들을 한에 엮은 것이 이번 책이다. '명상의 숲'은 짧은 글귀들로 지나치며 읽게 되는 반면, 책으로 만들어진 '명상의 숲'은 스님의 해설이 곁들여지니 사색과 함께 좀 더 깊이 그 뜻을 음미할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3 ~ 8/9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스님/배종훈	민족사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골프 공과 선사(불교의 공에 답하는 골프 이야기)	도범스님	조계종출판사
3	그대는 꽃입니다(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복한 첫걸음)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8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여행(고맨카의 외뿐사나 10일 코스)	윌리엄 하트	김영사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부처님 광명 기원문	성운대사/원성스님	운주사
5	카르마 100일(보현스님의 행복 체크카드)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10	열반경 역해	이상규	해조음

가족 명상프로그램된 마음챙김 수행과 붓다 가르침



수미 런던의 가족을 위한 명상

수미 런던 지음/김미옥 옮김
담앤북스 펴냄/2만 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예일대 종교센터 불교 지도법사(Buddhist Chaplain)이며 더럼가족명상회의 설립자인 수미 런던이 전하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마음챙김 수행과 여러 명상 기법에 자애(慈愛)와 5가지 윤리적 덕목(五戒) 그리고 6바라밀 등 불교의 가르침을 통합한 36개 과의 가족 중심 명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또한 마음챙김 수행과 불교의 가르침을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두루 통합하는 방법을 실제적이며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영성 발달의 심리적, 철학적, 관계적 차원을 강조하며, 부모의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명상은 주로 어른을 대상으로 하지만 종종 어린이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이 개발돼 시행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공립학교를 통해 7~9세 아동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가르치며, 여러 가지 측면서 효과를 본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들에 대하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명상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명상 수행을 했으며, 더럼가족명상회 설립자이고 듀크대학교 종교센터 불교 지도법사를 거쳐 현재는 예일대 종교센터 불교 지도법사인 수미 런던 김은 부모와 자녀 모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가족 중심 명상 안내서를 개발하였다. 안내서는 모두 3권으로 구성됐는데, 1권은 부모를 위한 명상 안내서이고 2권은 자녀를 위한 명상 안내서이며, 3권은 2권에 사용될 활동들로 꾸며져 있다.

이 책서 소개하는 각각의 명상 프로그램과 과정들은 마음챙김과 명상, 불교의 가르침을 통합하여 영성 발달의 심리적, 철학적, 관계적 차원을 강조하는, 가치에 기반한 명상 프로그램이며, 어린이가 보다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와 교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체계적이다.



부모와 자녀 위한 종합적 명상프로 6바라밀 등 불교 가르침 통합 구성 온 가족 위한 10가지 명상도 소개

〈수미 런던의 가족을 위한 명상〉의 제1권 〈부모 명상 가이드〉는 명상, 친절, 윤리, 성격, 봉사에 관한 5개의 부, 36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과는 익힐 내용과 명상 실습, 자녀양육에 통합하는 방식, 과제, 읽을거리, 기억할 요점과 논의할 질문 등 독자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성돼 있다.

1부서는 호흡이나 신체에 주의를 집중하는 등 기본적인 기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줄이는 방법을 비롯해 감정과 마음의 상태, 생각 등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법을 소개한다. 또한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마음챙김 명상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부에서는 친절을 주제로 다룬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에게도 더욱 친절할 수 있고, 나아가 중립적인 사람과 거북한 사람도 이해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자애 명상을 2부에서는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3부에서는 윤리, 즉 삶이 우리 앞에 던져주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윤리 그 자체보다 명상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윤리에 접근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윤리적 선택은 우리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정직하게 말하려는 선택은 정직한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런 성격은 결국 매 순간 윤리적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4부에서는 영성 수행의 주요 부분인 '성격'의 여러 특성과 더불어 그러한 성격적 특성을 기르는 명상 수련에 대해 설명하였다. 4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성격적 특성은 보시, 윤리, 인욕, 정진, 선정과 고통에서 배우기, 지혜 등이다. 5부 봉사에서는 명상 수련과 영성 수행을 어떻게 세상에 통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것은 가족들이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여 영적 수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 〈온 가족을 위한 열 가지 명상〉에서는 껴안기 명상, 테디 베어 호흡 명상, 태평스러운 새끼 돼지 명상, 내면의 미소 명상, 취침 시간의 자애 명상 등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열 가지 즐겁고 유익한 명상을 소개한다.

저자 수미 런던 김은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과 명상을 단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한 치유의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랐지만, 자신이 따르는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현실성을 훌륭히 통합한다.

▲저자 수미 런던은?

미국 예일대 종교센터의 불교 지도법사이며, 더럼가족명상회의 설립자이다. 1975년 뉴햄프셔에서 태어나 윌리엄스 대학서 학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불교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베리불교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고, 듀크대서 9년간 불교 지도법사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청바지를 입은 부처〉 〈붓다 그 첫 만남〉 〈수미, 일미를 만나다〉 등이 있다. 현재 미국 코네티컷 주 햄던서 예일대 종교학과 교수인 남편과 함께 두 자녀를 기르며,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불교 명상을 가르친다.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발원… 간결하고 일상적 언어로 표현



부처님 광명 기원문

성운대사 글, 원성스님 그림, 조은자 옮김
운주사 펴냄/2만 3천원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문.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 도덕을 증진시키는 기도 발원을 엮은 책이다.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원성 스님의 그림이 어우러졌다.

올해로 출가 80년을 맞은,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한 이후 매일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기원'을 하며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다. 즉 스님에게는 일평생 동안 기원이 바로 수행이었다. 이 책은 스님이 그동안 각각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행한 기도 발원문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발원은 수행의 방향이자 힘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발심이자 서원이기 때문이다. 성운 스님도 그런 서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수많은 불사를 성공시키고 존경받는 스승이 된 것이다.

불보살님들도 큰 서원이 있었기에 궁극에는 불보살이 될 수 있었다. 아미타부처님의 마흔여덟 대서원, 관세음보살님의 열두 서원, 보현보살의 십대서원 등이 널리 알려진 발원이다. 따라서 재가자든 출가자든 어떤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통의 발원은 불보살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기 쉽다. "~을 해주세요."가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승불자의 발원은 "~을 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 즉 '나' 혹은 '내 ~~'의 이해와 이익을 위한 발원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 나아가 온누리의 모든 존재를 위한 발원이어야 한다.

일상에서의 기원(기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동력이 된다.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을 낭독하다 보면 마음속으로부터 감동이 우러나오면서 신심이 고취되기도 하고, 발원 내용과 깊이 공감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이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어서, 굳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의식하지 않더라도 불교의 철리와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기도 하다. 아울러 감사와 배려라는 공동체적 의식과 도덕적 인격 함양에도 도움을 준다.

이 책에는 모두 100개의 기원문이 담겨 있다. 우리 불자들이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기원문을 찾아 독송하고 염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얻고 해탈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 등 다른 사람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자타불이(自他不二)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도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연히, 발심 서원은 입으로만 떠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각 기원문에는 동자승 작가 원성스님의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보는 이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100컷의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힐링시켜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安般守意經

선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선경禪經!

안반수의경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되는 수식관을 상세히 설하고 있는 『안반수의경』과 지관쌍수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도지경』을 상세한 주석과 함께 만난다!

안세고 漢譯, 석법성 역주 / 신국판 양장
240쪽 / 값 14,800원 / 운주사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수행!

위빠사나 수행의 방법론과 더불어, 저자가 그동안 위빠사나 수행을 해오면서 겪은 경험들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다.

영선 지음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 운주사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는 가르침!

풍경소리 5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영원히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지혜!

글 풍경소리, 그림 조병완 / 컬러 / 136쪽 / 값 13,800원 / 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근대 한국의 역사·풍경 담은 판화전

고판화박물관 15주년 특별전 8.18~9.23
'판화로 보는 근대 한국의 사건과 풍경' 展

금강산사대찰전도, 논산은진미륵 등 60여 점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 보도판화 최초 공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금강산사대찰전도, 논산 은진미륵불 등 한반도 근대 풍경을 비롯하여 동학혁명과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한국의 근대사를 담고 있는 판화작품이 전시된다. 개관 15주년을 맞이한 고판화박물관은 개관 15주년과 광복 73주년을 기념하여 '판화로 보는 근대 한국의 사건과 풍경' 특별전을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최한다.

문화재청과 강원도 원주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8년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열리는 첫 번째 특별전으로, 한선학 관장이 23년 동안 수집한 수집품 6천여 점 중에서 근대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판화와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 판화 60여 점을 선보인다.

2부로 구성된 전시는 1부에서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까지, 근대 한국의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판화들을 선보임으로써 광복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동학혁명 때, 남북접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양호도찰 오지영의 이름이 새겨진 동학의 태극기 목판을 비롯하여, 대한제국의 첫 황제 고종이 포함된 '세계 십대 황제 초상', 을사늑약 후 불같이 일어났던 저항정신이 깃들어 있는 민충정공의 혈죽도 목판화와 최익현 선생의 의병봉기가 기록된 '일성록' 목활자본, 1907년 한국군대 해산을 반대하며 저항했던 남대문 전투 판화와 근대 한국의 독립 운동사의 정점을 찍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을 대형 석판화로 표현한 작품 등이 소개된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을 그린 판화는 그 당시 새로운 판화기법인 석판화로 제작되었으며, '이토공 조난지도(伊藤公 遭難之圖)'라는 제목으로 안중근 의사를 '흉한(兇漢)'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안중근 의사의 저항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화면 옆면에는 보도 기사도 실려 있어 보도에도 충실하면서 판화 작품으로 감상할 수도 있게 만든 보도 판화이다.

2부에서는 1899년에 제작된 대형 목판화인 '금강산사대찰전도'를 비롯하여,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채색 석판화로 제작하여 10폭, 8폭 병풍으로 제작된 작품들과 일제강점기에 강원도가 발행한 '금강산 탐승도' 등 금강산 조감도도 다양하게 소개되며, 금강산 관광 기념 스탬프를 모은 책자에는 '신계사' 대웅전의 모습을 채색 판화로 찍은 작품도 소개된다. 일본의 세계적인 목판화 작가인 히르카츠 운이치의 평양 '목단대'와 세계적인 일본의 우키요에 작가인 가와세 하스이가 그린 '은밀대' 등 북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있는 판화가 다양하게 소개된다. 또한 광화문, 남대문을 비롯한 19세기 서울의 풍경과 논산 은진미륵불 등도 전시되어 남북을 아우르는 근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다.



논산은진미륵 목판화 24.2×27.2㎝ / 일제강점기.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 석판화, 1909년 12월 1일 동경 박화관발행 39.3×53.8㎝.

한선학 관장은 "한국 · 중국 · 일본 · 티벳 · 몽골 · 베트남 등에서 지난 25여 년 간 수집한 6천 여 점의 유물 중에서 근대 한국과 관련된 60점을 선별하여, 현재 한국의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 · 북한의 아름다운 풍경을 판화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 · 북한의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와서 분단의 아픔을 씻고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고판화박물관은 관람객이 이번 전시회의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별전 기간 동안 1박 2일 과정의 문화형 템플스테이로 '전문가와 가족을 위한 숲속판화여행, 다문화 가정을 위한 숲속판화여행'을 특별전 연계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2003년 문을 연 고판화박물관은 한 · 중 · 일 · 티벳 등 동아시아 고판화 2천5백여 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6천여 점의 고판화를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쇄박물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033)761-7885.

궁금한 사후세계 여행하며 해탈의 시간을…

'신과 함께 저승여행' 특별전
대원사 티벳박물관 8. 6 ~ 2019. 4. 7

사후세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열리고 있다.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8월 6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신과 함께 저승여행' 특별전을 개최한다.

'신과 함께 저승여행' 특별전은 연이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신과 함께1 · 2'의 기본 모티브인 〈불설수생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전에 자신의 죽음을 연습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예수재 의식을 직접 체험해 보는 특별전이다. 또한 불교회화의 중요한 장르이자 사후세계 대한 염원이 담긴 '시왕도(十王圖 · 보물 제1800호)'를 감상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영화 '신과 함께'는 49재를 지내면서 일곱 번의 심판을 받고 일곱 개의 지옥을 지나 다시 인간세계로 환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 다른 '신과 함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지옥도를 비교 감상하고, 10대 지옥을 관장하는 시왕도, 육도윤회도, 분노존, 티벳의 장례문화인 천장(天葬)의 절차와 〈티베트 사자의 서〉 동영상 감상, 입관을 통해 죽음을 체험하는 죽음체험실, 바르도(중음) 명상실 등을 체험함으로써 사후세계의 사전 체험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위한 삼세인과(三世因果)의 법칙을 깨닫기 위한 특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세계 대한 염원이 담긴 '시왕도(十王圖 · 보물 제1800호)'를 감상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특별전은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섹션 1은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를 감상한다. 영조 때인 1766년에 제작된 시왕도는 10폭으로 제작되어 각 시왕마다 한 폭씩 구성 되어있다. 매 폭마다 위쪽 2/3를 재판하는 시왕과 관속으로 채우고 채색 구름으로 구분한 나머지 1/3은 중생의 재판 모습과 지옥 풍경으로 그려졌다. 어느 폭에나 지장보살이 죄를 다스리는 현장에 왕림하여 중생들의 구제를 서원하고 있다.

섹션 2에서는 예수재를 체험한다. 생전에 삼세인과를 믿고 예수재를 모시고 수생전을 다 갚게 되면 반드시 내세에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복을 받고 장수한다고 한다.

섹션 3에서는 〈死者의 書〉 동영상을 감상하고 바르도 명상 체험을 한다. 티벳 사자의 서(死者의 書)의 원래 제목은 티벳어로 〈바르도 퇴톨〉이라고 한다. 〈바르도〉란 둘 사이란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다시 환생할 때 가지의 중간사이를 말한다. 이 상태에 머무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49일이다. 그리고 〈퇴톨〉이라는 뜻은 듣는 것을 통한 영원한 해탈이라는 뜻이다. 죽음의 순간 오직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섹션 4는 죽음 체험실이다. 지상보살 앞에 놓인 목관에 들어가 자신의 죽음을 묵상해 본다. 죽음의 체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이며 영적인 성숙을 준비하는 해탈의 시간이다.

섹션 5에서는 지옥 설화에 나오는 탈 등 저승 관련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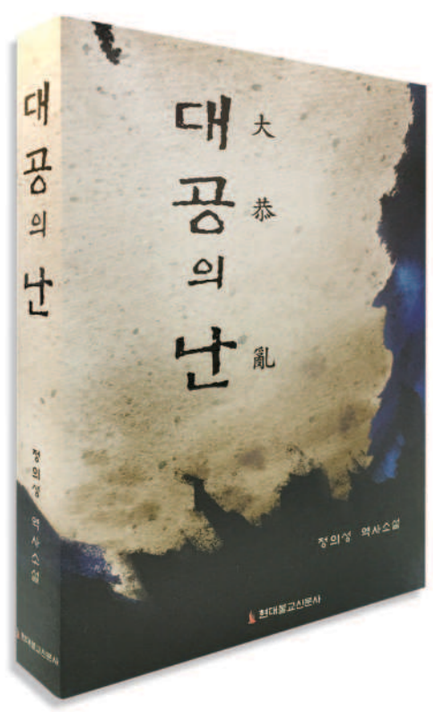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조선 불교소설 특징은 '佛·儒·仙 융합'

이대형 교수, 11일 한국불교사硏 학술세미나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후기는 '소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소설들이 나왔다. 이들 조선 후기 소설들에 함의된 불교적 요소를 분석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대형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8월 11일 남양주 봉인사 지장전에서 열린 한국불교사연구소 학술세미나에서 조선 후기 불교 소설들을 분석하고 특징들을 살폈다.

이 교수는 조선 후기 불교 소설들을 '불교 사상'과 '불교 소재'로 나눠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불교 사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소설은 김만중(1637~1692)의 〈구운몽〉과 구전설화가 소설이 된 〈심청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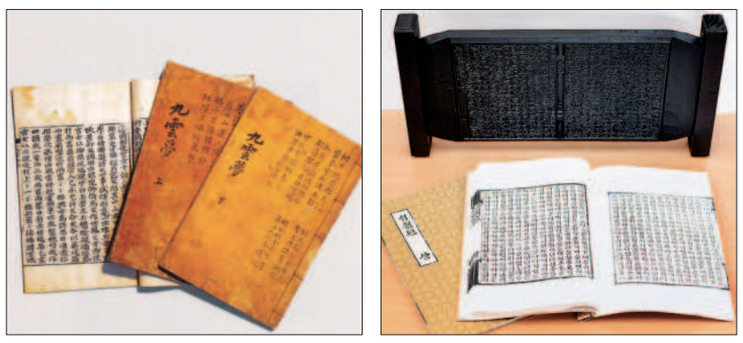
깨달음·효 사상 담긴 불교소설

김만중이 51세(1687)에 지은 〈구운몽〉은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 스님이 8선녀를 희롱한 죄로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세상에 유배돼 태어나고, 소년급제를 해 8선녀 후신인 8명의 여자를 만나 아내로 삼고 영화롭게 살다가 인생무상을 느껴 8선녀와 함께 불문(佛門)에 귀의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김만중이 자신의 문집에 승려와 시를 읊고 〈원각경〉, 〈능엄경〉을 빌렸던 것을 기록하는 등 불교에 조예가 깊었다"면서도 "〈구운몽〉은 모친을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유학의 틀을 넘어서 불교의 깨달음을 주제로 표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조선시대 불교와 소설은 유학적 관점에서 비난의 대상"이라면서 "불교와 소설 모두 여성이 큰 비중을 담당했다는 특징이 있다. 불교와 소설의 융성은 조선 후기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효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심청전〉 역시 불교 사상을 보여주는 소설로 이 교수는 꼽았다. 실제 학계에서는 1792년 찬술된 〈옥과현성덕산 관음사사적〉을 〈심청전〉 근원설화로 보기도 하며, 용궁에서 연꽃을 통해 재생하는 모티프는 〈관무량수경〉을 비롯한 정토경전에 등장하는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조선 후기 소설 〈구운몽〉과 〈심청전〉. 이들 소설은 깨달음과 효라고 하는 불교 사상을 차용했다.

구운몽·심청전, 불교사상 담겨
대다수 소설, 불교 소재 활용
현세 구복종교 이미지가 강해
佛·儒 융합, 당시 사상계와 일치

불교 문화, 민중에 영향 미쳐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불교 소재 소설로는 역사소설 〈최척전〉, 가정소설 〈사씨남정기〉, 영웅소설 〈소대성전〉, 가문소설 〈소현성록〉 등을 꼽았다. 이들 소설들은 줄거리 상 중요 분기점에서 장육불·관음보살·노승·업보 등의 불교 소재들이 활용된다.

실제 〈최척전〉의 경우 주인공 최척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지리산 연곡사로 피난하고, 여기서 장육불을 현몽해 몽석(夢釋)과 몽선(夢禪)을 낳는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장육금불이 예시를 주어 극복하게 해준다.

이 교수는 "조선 후기 불교를 소재로 한 소설은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그만큼 불교가 당대 조선인의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련의 조선 후기 불교 소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구복'과 '불교·유교·도교'의 융합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깨달음을 주제로 한 〈구운몽〉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작품들은 현세 구복을 위해 불교를 신앙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서 "영웅소설에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기 위해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사대부 여인이 집안에서 쫓겨났을 때 사찰에 피신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 후기 불교 소설의 중요한 특징은 '불교·유교·도교'의 통합이다. 〈구운몽〉에서 육관대사와 성진이 불교적 인물이라면, 8선녀는 도교적 인물"이라면서 "소설에서 보이는 불교와 유교, 도교의 융합 관계는 조선 후기 사상계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후기 불교지성인들의 문화적 추동과 변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선후기 불교사상의 정비와 사기의 저술(전준모, 동국대) △조선후기 불자들의 정토인식과 불교의례의 재편(고영섭, 동국대) △조선후기 불교 변문의 창작과 변상도의 유통(박도화, 문화재청) 등의 주제논문이 발표됐다.

'경주 사천왕사' 발굴·활용 어떻게

경주문화재硏, 23일 학술대회

신라 대표 호국사찰인 경주 사천왕사의 발굴 성과를 살펴보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8월 23일 오전 10시 '경주 사천왕사지 보존정비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경주 드림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7개 주제발표로 구성됐으며, 오전에는 보존 현황과 발굴성과를 오후에는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뤄진다.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면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오전 대회에는 동아시아 사지(寺址)의 보존정비 현황 사례와 경주 사천왕사지에 대한 발굴성과를 살피기 위해 △중국 사지의 보존정비 현황과 사례(현승욱, 강원대) △우리나라 사지의 보존정비 현황과 사례(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현황과 주요성과(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발표한다.

오후에는 △사천왕사지 출토유물의 과학적 분석과 복원(정민호 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 유적 보존관리 방안(김우웅,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신라 사천왕사 관련 불교문화원형 발굴과 활용 방안(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주 낭산 유적의 스토리텔링과 대중문화콘텐츠 개발 전략(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등이 발표된다.

사천왕사는 679년(문무왕 19) 경주 낭산 신유림(狼山 神遊林)에 건립한 신라 통일기의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낭산 신유림은 신라를 공격하는 중국 당나라의 해군을 막기 위해 승려 명랑이 밀교 의식을 행한 곳이기에 사천왕사는 신라 호국불교의 성격과 신라인들의 불교관·우주관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찰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천왕사지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가람배치를 비롯해 중요 건물의 규모와 구조 등을 새롭게 확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4,000점 이상의 다양한 유물을 발굴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사천왕사지에서 나온 사천왕사 녹유신장상(四天王寺 綠釉神將像), 녹유신장벽전(綠釉神將壁塼)을 복원해 올해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사천왕사지의 보존과 활용 분야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 한국불교 시대별 이념 '明暗' 존재

김광식 교수, 15~17일 교수불자대회서 주장

해방 후 2000년 전까지 분석
사상 미약 '종단개혁' 폐해 多
교불련, 한국불교 중흥 토론도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시대별 한국불교 이념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는 8월 15~17일 진행된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현대불교의 종단사와 이념'을 통해 한국불교 시대별 이념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해방 이후부터 2000년까지 시대를 △해방공간(1945~1950) △정화공간(1951~1962) △산업화 공간(1963~1980) △민주화 공간(1981~1999)으로 구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방공간을 지배했던 불교의 이념은 대중불교(식민지불교)와 전통불교였다. 이는 식민지 공간의 불교 근대화에서 나온 불교 흐름과 이에 대립하는 것이 전통불교 흐름이었다.

정화공간에서 한국불교는 식민지불교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정화공간 안에서 불교 및 승려를 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해 비구불교가 지배적 이념이 됐다"면서 "대처 측은 자신들의 노선을 보살불교로 강변했지만, 신도와 국민들에게는 수용되지 않았고 정화불교 노선이 더욱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산업화 공간 안에서 불교는 현대화와 호국불교가 주된 이념으로 작용했다. 불교 현대화는 당대에 불교를 토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고, 당시 사회를 풍미했던 민족주의도 영향을 미쳤다.

반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불교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체재 우호적 노선을 걷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1980~90년대의 치열했던 민주화 열기는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두됐던 '민중불교'는 국가권력으로 인한 10.27법난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왔다. 불교는 민중불교적 관점에서 사회 민주화에 동참했고, 이는 불교 내부 혁신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불교의 자주화 및 혁신을 사회 민주화와 동일하게 인식한 결과로 이전 이념인 정화불교와의 대립에서 민중불교가 승기를 잡아 종권을 장악했다"면서 "그러나 불교사상의 근거가 미약한 종단개혁은 불교의 세속화를 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논문은 '한국불교 중흥'을 주제로 한 1부 발표에서 이뤄졌으며, △송운석 단국대 교수의 '한국불교 종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성규 영남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위기와 중흥전략'도 발표됐다.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조계종 前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윤성식 고려대 교수, 이종수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교수불자대회 참가자 전원이 참석해 한국불교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중공사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韓中 학자, 근현대불교 사상·의례 살핀다

연세대 철학硏·선학회, 23~27일 국제학술교류회 개최

한국과 중국의 근현대불교 사상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연세대 철학연구소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연세대 문과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중 근현대불교의 사상과 의례'를 주제로 국제불교학술교류회를 개최한다. 교류회는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주관하고,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어산작법보존회(이사장 법안)가 후원한다.

한국과 중국의 불교학자 13명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교류에서는 성철 스님의 선사상부터 현대 불교음악까지 다양한 주제의 학술 논문들이 발표된다.

한국 측에서는 △신규탁 회장의 '조선 근현대불교관계법령과 선교 강학 전통' △박인석 동국대불교학술원 교수의 '퇴옹 성철의 임제록 강설과 해인총림'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교수의 '성철 선사의 간화선법 일고'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성철 스님 〈백일법문〉의 핵심철학' △어산작법학교 학장 법안 스님의 '현행 한국수륙재의 양상여특징'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연구교수의 '한국불교의례의 실태와 과제 및 그 해법의 실상' △윤소희 위덕대 학술연구교수의 '한국 현대 불교음악의 유행과 반추'가 발표된다.

중국 측에서는 조문흥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당위서기의 '항일전쟁 기간 중 중일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태도 비교'를 비롯해 △위도유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의 '성철 선사의 돈오돈수와 중국 선불교의 한국화' △기화전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의 '북양정부 시기의 불교 정책과 사원관리임시규칙' △소장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의 '티베트 불교 밀교 수행의 구조와 체계' △하덕미 중국사회과학원세계종교연구소 불교연구실부연구원의 '동진시대 선비들의 불교신앙의 내용과 특색' △호정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의 '한국 현대 불교의 법맥과 성철 선사' 등의 발표가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돌담풍경

꽃은 피고 지는 때가 있고

햇살은 들고 나는 때가 있고

뙤약볕에도 돌담은 그늘을 드리우니

풍경은 늘 여법하다

많은 눈길에도 꽃은 달라진 것이 없고

지나는 바람에도 풀들은 자리를 옮기지 않으니

말없이 살아도 법도가 우리보다 나은 것을

언젠가는 닮을 수 있을까

돌담이 드리우는 그늘을

변함없이 살다가는 꽃송이와 풀잎들을…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⑦ 혈압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저혈압, 고혈압보다 '더' 위험

무더위 장시간 노출 위험

단전에 쑥뜸 효과적 치료

고혈압이 무섭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저혈압이 더 무섭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보통 저혈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축기 90-100 정도에 이완기 60-70 정도로서, 혈압이 낮은 편이지 저혈압은 아니므로 전혀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

의학적으로 저혈압은 수축기 90 미만, 이완기 60 미만인 경우이다. 심장병, 결핵,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피질 질환, 암 등의 질병 그리고 약물 부작용 등에서 나타나는데 만약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과도한 출혈, 심한 영양실조, 심한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등으로 갑작스레 저혈압으로 떨어지면 쇼크에 빠져 위험해진다. 특히 80/40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몸 곳곳에 피가 적게 공급되어 생명이 위험하다.

혈압이 낮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

혈압이 높으면 중풍 같은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많아 문제이지만, 혈압이 낮으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운이 떨어져 만성 피로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는 등 활기차고 부지런하게 생활하기 어렵다. 늘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호소한다. 혈압이 낮아 심장에서 오장육부를 비롯한 몸의 곳곳에 피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낮은 혈압으로 인한 자각 증상이 없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할 경우 쉽게 피로해지거나 기운이 없고 어지러움, 두통, 건망증이 나타나며 심하면 실신해서 쓰러지기도 한다.

저혈압은 어떤 사람에게 많을까?

체질적으로 몸이 야위고 허약하며 얼굴색이 창백하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많은데, 여성에게 더 많고 유전성이 있다. 흔히 몸이 가냘픈 여학생이 운동장에서 자주 쓰러지거나 주부들이 무기력해하면서 기분 나쁘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맥박이 약하면서 혈압이 낮은 경우가 많다. 체형이 퉁퉁한 사람들 중에도 더러 저혈압이 있는데, 물살이 찐 경우로서 습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머리에 무엇을 씌어 놓은 것 같으면서 통증이 온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앞이 아찔한 느낌이 들거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처럼 체위를 변화시킬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은 웬만한 체위변화로는 혈압이 변화하지 않거나 약간 올라가는 정도지만 기립성 저혈압이 있은 일상생활 중 간단한 체위변화만으로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다. 갑자기 일어서면 하지에 몰린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혈압 치료제, 이뇨제, 항우울제 등을 장기 복용하거나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만성적 스트레스로 부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생긴다. 노인들의 실신 원인 중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낙상해서 골절상이 되기 쉬우므로 치료받아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저혈압을 어떻게 치료할까?

저혈압은 기가 허약하거나 양기가 허약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비위장이 허약하거나 혹은 심장의 양기가 부족하거나 혹은 신장의 정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위장의 기가 허약하면 몸이 나른하고 눕기를 좋아하며 어지럽고 눈앞이 어질어질하며 말소리가 약하고 숨이 짧고 힘이 없으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식은땀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며 대변이 묽어진다. 심장의 양기가 손상되면 가슴이 많이 뛰고 얼굴색이 창백하면서 숨이 차게 된다. 신장의 정기가 부족해지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면서 건망증, 불면증이 나타나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저혈압은 혈압으로 인한 자각 증상이 없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할 경우 쉽게 피로해지거나 기운이 없고 어지러움, 두통, 건망증이 나타나며 심하면 실신해서 쓰러지기도 한다.

비위장이 허약하면 황기, 백출, 사인 등으로 기를 보강하며 소화를 돕는 한약을 함께 쓰고, 심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인삼, 계피 등의 약재를 위주로 쓰며, 신장의 정기가 부족하면 산수유, 구기자, 두충 등의 보신 약재를 쓴다.

저혈압 있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누운 자세에서 앉거나 서려고 할 때 천천히 일어나도록 해야겠고, 잠잘 때는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오래 서 있는 것을 조심하고, 뜨거운 물에 오래 서서 샤워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뇨제, 혈관확장제, 안정제 등의 약물 복용을 주의하고 소금을 약간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체질에 적합한 운동을 꾸준히 하되 과격하거나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늘 기운이 없다면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를 비롯한 고칼로리, 고단백 음식에 비타민,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되도록 과일도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성질이면서 기를 올려주는 성질을 가진 찹쌀, 수수, 쑥, 마늘, 파, 생강, 부추, 복숭아, 조기, 갈치, 대구, 미꾸라지, 잉어, 붕어 등이 좋다. 만약 식사 후에 저혈압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과식하지 않고 적은 량으로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음식 외에 혈압을 올려주는 방법은?

몸속에 양기를 불어 넣어주는 쑥뜸이 효과적이다.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통하여 경락으로 들어가게 하여 찬 기운을 몰아내며 양기를 넣어주고 기를 소통시켜 주기 때문이다. 저혈압에 효과를 보려면 배꼽 아래 부위에 뜸을 뜨면 된다. 배꼽 아래 3cm 정도 부위를 '단전(丹田)'이라고 하는데 경혈 이름이 기해(氣海), 관원(關元)으로서 기의 바다이고 원기의 관문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꾸준히 뜸을 뜨면 기와 혈의 순환을 왕성하게 해 주므로 영양제 주사에 비견될 수 있다. 또한 정기를 보강해 주므로 원기 부족에도 좋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굴셀건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80ml × 60팩
13만원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세계최초 부처님일대기 장편드라마
55부작
드라마 붓다
Drama Buddha
방송 시간
월·화 오후 1시 30분(더빙본)
수·목 새벽 1시 (자막본) / 토·일 밤 10시 (더빙본)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